금주의 법구-〈선림보훈〉
다른 이들의 이목을 내 이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게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게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28일)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호스피스 · 안전요원 등 불교 '活生복무' 제시를

화두 떠오른 대체복무제, 불교 역할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0년대 불자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이 있던 불교계서 호스피스와 안전요원, 간병인 등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를 정부에 선도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조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불교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계(五戒) 중 첫째인 '불살생계'와 맞닿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짙다. 직접적으로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군사훈련이 살생의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과 배치된다는 견해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스님과 불자 중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호국불교'라는 특수한 한국불교의 이미지로 인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불살생의 종교인 불교계부터 '살생(殺生)'이 아닌 '활생(活生)'의 대체복무제를 논의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불교계가 대체복무제 제안을

2000년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표를 역임한 효림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종교를 떠나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거부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부여돼야 한다. 단순히 병역을 넘어 엄연한 인권문제"라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호스피스나 간병인 등과 같은 대체복무안은 수차례 제시됐다. 불교가 소극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대체복무안인 호스피스, 양로원 · 고아원 봉사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구체적 방법 제시와 불교계 입장 정리를 위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불교계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부족하다. 이제는 불자를 비롯한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범불교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며 "대체복무의 가능성이 열린 만큼 군복무에 버금갈 정도로 힘들면서도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불교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앞으로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서 대체복무를 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그동안은 헌법에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사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복무 희망자가 예상되는 불교계서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국불교' '승군' 해석 어떻게?

대체복무제 마련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걸림돌은 있다. 바로 고려시대 '항마군(降魔軍)'과 조선시대 '승군'의 역사다. 이는 승려들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 무기를 들고 싸운 사례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연구와 더불어 호국불교에 대한 교리적 · 철학적 해석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임진왜란과 같은 역사적 상황 때문에 불교계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딜레마는 발생할 수 있다.

〈A2면에 기사 계속〉

불교국가 대만의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4~6개월 (현역 4개월)
복무분야	소방 · 의료 행정 · 환경 등
신청자격	신앙생활 증명

군사훈련 없는 대체복무제
2019년 12월 내 마련 예정
스님 · 불자 해당될 수 있어

그간 논의 소극적이던 불교
전문가들 '의견 수렴 당부'
"교리적 뒷받침 위한 연구도"



이제는 세계유산 '통도사' 성보 한자리에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산사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의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가 문을 열고 9월 30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7월 3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8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의 개막식을 열고 161점의 통도사 성보를 공개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진 왼쪽) 등 참석자들이 개막식 후 전시된 성보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 박재완 기자

한국 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쾌거'

30일 제42차 세계유산위서 결정… 통도사 등 7곳 모두 올라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날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가지는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 · 마곡사 · 선암사 · 대흥사 · 봉정사 · 부석사 · 통도사 7곳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13개의 세계유산을 갖게 됐으며, 불교 관련 세계 유산은 '석굴암 ·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韓 산사 가치, 세계가 인정

'한국의 산지승원'의 등재는 한국 산사의 독보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불교사찰들은 단독유산으로 개별 등재돼왔으나, '한국의 산지승원'은 한국 대표 전통사찰들이 가지는 포괄적 특징과 개념을 연속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은 "등재된 7개 사찰은 '산사'라는 대표성을 가지면서 지리적 · 입지적 · 신앙적 다양성을 대변한다"면서 "등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산사'라는 가치가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등재로 인해 천년 넘게 이어온 한국 스님들의 수행 · 생활 · 교육 등 무형적 요소들이 주목받으며 살아있는 유산으로 높게 평가 됐다"면서 "등재 이전에 참배객들이 사찰이 보유한 건축물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산사를 살아있는 승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봤다.

산사통합관리단 구성해 유지 · 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 6년마다 잘 보존되는지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잘못됐을 경우 위험 유산으로 분류돼 등재 취소가 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계종 문화부는 7월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산사들의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조계종 문화부는 △산사 내 비지정 문화재 건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산사 종합정비 계획 △관광객 증가 대응 방안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등을 향후 계획으로 내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산사통합관리단(혹은 산사세계유산센터 · 가칭) 설립이다. 이는 지난해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명시한 것으로 7개 산사를 통합 관리하는 종단 중심 기구로 해당 지자체들과 기관들도 참여하는 구조다.

조계종 문화부는 "산사통합관리단은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등재된 유산이 적절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7개 산사의 학술 · 보존 · 홍보들을 당담할 것"이라며 "등재 직후 대두되는 사찰 내 신축불사를 비롯한 종합 정비 및 관광객 관리 등도 통합관리단에 의해 관리 방향과 정해지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은 점 단위의 유산이 아닌 면 단위의 유산으로 사찰에 입지한 건축물과 시설물은 모두 동일한 관리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산사의 가치를 지키며 규제로 박제화된 산사가 아닌 조화로운 변화를 통한 생명력 있는 산사로 보존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 칼럼 A5 · 19면〉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신도조직화 '신도품계' 대전환 모색

조계종 포교원, 종책연찬회서 현황 · 개선점 논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1년 신도 조직화 일환으로 도입된 신도품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품계, 전환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제76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신도품계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신도품계는 발심, 행도, 부동, 선혜 품계로 나뉜다. 이 중 발심품계는 신도등록과 함께 신도증이 대신해 적용된다. 사실상 신도 입문자에게 주어지는 품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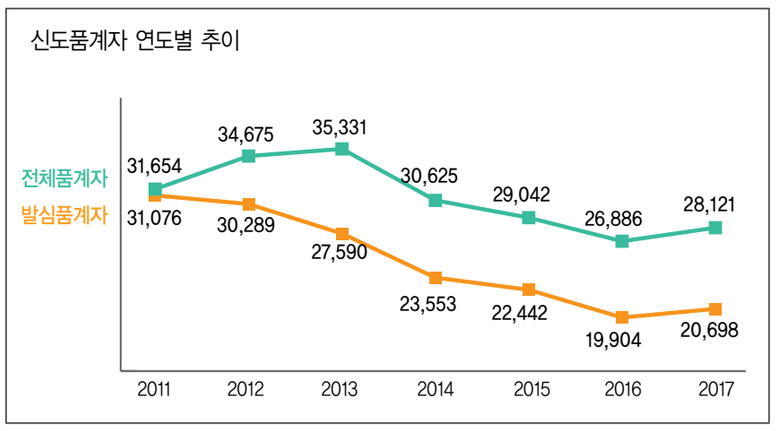
문제는 이 같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품계부터 매년 줄고 있단 점이다. 발심품계자는 2011년 3만1076명에서 2012년 3만289명, 2013년 2만7590명, 2014년 2만3553명, 2015년 2만2442명, 2016년 1만9904명, 2017년 2만698명으로 감소했다. 발심품계자를 배출하는 사찰 수도 2011년 1158곳, 2012년 1123곳, 2013년 1056곳, 2014년 1021곳, 2015년 991곳, 2016년 988곳, 2017년 983곳, 2018년 793곳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상위 품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사찰에서 활동하거나 포교사로 나아가는 품계인 부동품계자는 2011년 531명을 시작으로 2012년 4297명, 2013년 4548명, 2014년 4694명, 2015년 3695명, 2016년 4303명, 2017년 4451명 등으로 정체 상태다. 전체 품계자 수도 제도 시행 후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총 23만2604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찰과 불자들 사이에서 신도품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포교원이 권역별 교구신도회 임원간담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334명 중 54%가 신도품계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발심 품계자 매년 감소세
8년간 23만 명 품계 받아
권리 · 의무 모호, 인식 부족
"제도 취지 공감대 확산해야"

이동선 포교원 교화팀장은 "제도 도입 취지는 신도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등이었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사찰에서도 품계증 정도는 수계식에 사용할 뿐 활용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신도품계제도의 미정착 원인을 △신도품계 유무에 따른 사찰운영 차이 부재로 스님들의 무관심 발생 △기복중심 신앙으로 품계 관심 저조 △품계 이익과 불이익이 없고, 강제력 부재 △제도 도입 시 일반신도 대상 조사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조기룡 교수는 "주지 인사 평가제에 신도품계제 시행여부를 두는 등 강제 유인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교학 위주 품계 수여 외에도 신행에 따른 품계 수여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교학과 신행이 결부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품계별 품서식에 차등을 두고, 각 법회 등에서도 품계별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실상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할 과정이 있을 때 성취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된다. 신도품계는 신도의 교육단계, 직무부여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품계 간 기간을 늘려 권위를 높이고, 품계에 따라 사찰 내외의 활동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끝으로 "품계제도를 통해 종단이 이뤄낼 것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먼저 사찰운영에 있어 신도 조직화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품계제도 도입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 낼 지부터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행위에 그치지 말고 전법, 신도조직화를 통한 불교 중흥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A1면 '대체복무제'에 이어〉

따라서 각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가 머리를 맞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불교는 큰 틀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001년 불자로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수감생활 한 오태양 씨는 "승군의 사례와 대체복무제를 놓고 불교적으로 해석하긴 쉽지 않겠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결과가 감옥뿐인 것은 문제"라며 "원효대사가 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고 출가했듯이 불교계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철 교수는 "실제 스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례는 임진왜란 정도다. 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며 "역사 속 승군이 살생을 위해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성벽이나 제방을 쌓고, 민초를 위로하는 등 현재 논의하는 대체복무제와 같은 활생의 가치를 가진 일이 더욱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교국가인 대만의 대체복무제가 '활생'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어 검토해볼 만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대만의 대체복무 기간은 4~6개월(현역 4개월)이며, 합숙형태로 근무한다. 신청자는 2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증명해야 하며, 복무 분야는 경찰 · 소방 · 병원 · 양로원 · 공공건물 관리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교계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은 오태양(정토회) · 김도형(대불련) 불자 등 서너 건이 있었다. 오태양 씨는 2004년, 김도형 씨는 2006년 병역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인 후학들 무산 스님 추모 문집 발간

김형중 · 배우식 · 강규, 49재 맞아 헌정 형식으로 펴내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의 문학사상을 그리는 후학 문인들이 추모문집 〈아득한 성자 · 사진〉를 발간했다.

추모 문집 작가로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과 무산 스님의 선시조 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배우식 시인, 설악산 인근에서 수의사로 일하면서 문단에서도 활동 중인 강규 시인이 참여했다. 모두 무산 스님을 흠모하는 후학들이다.

문집은 문인들의 추모시와 추모사, 선시조 따라 읽기, 무산 스님의 문학에 대한 평론들이 수록됐다.

실제 평론에 참여한 김형중 교장의 글에서는 무산 스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드러난다. 김 교장은 "무산 스님은 입적까지 불교 문학계를 대표하는 시승(詩僧)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최초로 시조 형식에 선시를 도입한 선구자이며,



본격적으로 한글로 선시를 구가했다"며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후 불교시의 성과 가운데 으뜸"이라고 찬탄한다.

무산 스님을 친견하며 그의 선시조를 박사 학위 주제로 삼고 연구했던 배우식 시인의 고백의 글은 더욱 절절하다.

틈틈이 친견하며 부자의 정을 느꼈던 배 시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님과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정을 내 안에 보물처럼 간직한 채 스님을 사사로움의 경계를 넘어 우리들의 성자님 혹은 대스승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서 "생사까지도 초월해 해탈의 경지를 보여주신 스님이 지금도 뼈 아프도록 그립다"고 추모한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37助道品 초기불교의 37가지 수행법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연기법, 4성제, 12처, 18계, 5온을 공부하면서 고(苦)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고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수행법 '37조도품(助道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7항목으로 4념처, 4정근, 4신족, 5근, 5력, 7각지, 8정도입니다. 37보리분법(菩提分法), 37각지(覺支)라고도 합니다.

*4념처(四念處 · 四念住)는 몸과 느낌, 마음, 법을 통찰하여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4가지 수행법입니다.

① 신념처(身念處) : 호흡과 동작을 관찰, 몸은 부정(不淨)한 것임을 알아차림. ② 수념처(受念處) : 느낌에 따르는 고통의 생멸을 봄. ③ 심념처(心念處) : 생멸변화하는 마음의 무상함을 관함. ④ 법념처(法念處) : 자아의 실체가 없는 무아를 알아차림.

4념처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마음공부로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위빠사나(觀) 수행입니다.

4정근(四正勤 · 四正斷)은 선법(善法)을 증대하고 악법을 멀리하는 4가지 바른 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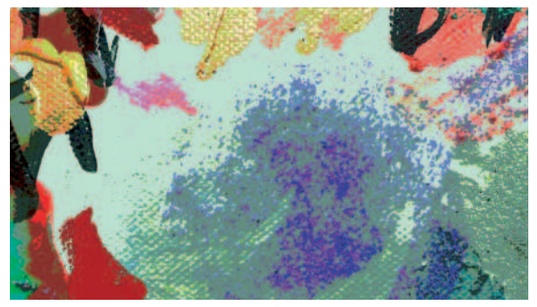
① 단단(斷斷) :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는 노력. ② 율의단(律儀斷) :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미리 방지. ③ 수호단(隨護斷) :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도록 노력. ④ 수단(修斷) :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대시키는 노력.

4신족(四神足 · 四如意足)은 신통을 얻기 위해 선정에 드는 4가지 성취 방법입니다. 여기서 신통이란 삼매가 깊어져 8고(苦)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① 욕신족(慾神足) : 선정에 들기를 원함. ② 정진신족(精進神足) : 선정에 들려고 노력 ③ 심신족(心神足) : 마음을 가다듬음. ④ 사유신족(思惟神足) : 사유하고 주시함.

5근(五根)은 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는 5가지 기능입니다.

① 신근(信根) : 믿음 4불괴정(不壞淨). ② 정진근(精進根) : 정진 4정단. ③ 염근(念根) : 마음챙김 4념처. ④ 정근(定根) : 삼매 4선(禪). ⑤ 혜근(慧根) : 통찰지 4성제.



조도품-백천만겁난조우 그림 · 조향숙

'4념처 · 8정도' 핵심 수행
계정혜 삼학에 포함
서구, 마음치유에 활용

5력(五力)은 5근보다 진전된 수행 단계로 일체의 장애를 정화하는 5가지의 힘입니다.

7각지(七覺支)는 깨달음의 지혜를 증득하는 7가지 인자로 念, 擇法, 精進, 喜, 輕安, 定, 捨입니다.

8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8정도가 계 · 정 · 혜 삼학의 수행 방법인 것처럼, 37조도품은 삼학에 포함됩니다.

*37조도품의 핵심은 4념처(위빠사나 · 觀)와 8정도(사마타 · 止)입니다. 그러므로 37조도품은 지관법과 간화선 수행의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음챙김 사념처를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치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뇌과학, 심리학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7조도품은 고(苦)에 묶여 있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수행입니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이란 말씀처럼 백천만겁난조우한 불법의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근기에 맞는 도품을 택하여 행복의 숲을 가꿉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禪 대중화 이끌 문경 명상마을 건립 본격화

건립추진위 7월 12일 봉암사 인근서 기공식

명상 결합, 선(禪) 대중화 시작
'수행 소프트웨어' 현대화 기대
핵심인 '2단계 불사' 후원 절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얀마 마하시 위빠사나센터, 프랑스 플럼빌리지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수행 마을 건립이 본격화된다.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의정, 이하 건립추진위)는 7월 4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오전 11시 문경 봉암사 인근 건축현장에서 '문경세계명상마을'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에서는 최근 명상 열풍이 일고 있지만 명상의 원류로 꼽히는 선(禪) 수행 대중화는 요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 차원의 명상센터 및 명상마을 조성에도 현대화된 선(禪) 수행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었다.

이번 기공식은 1단계 불사의 시작으로 대지면적 12만230㎡, 연면적 1만1천100㎡에 연말까지 교육 · 강의와 숙박 등 주 건물 역할을 할 웰컴센터와 주차장이 조성된다.

건립추진위 상임위원장 의정 스님은 "현재 인류는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의 부조화로 고통받고 있다. 선 수행 속에 이런 고통 해결의 답이 있다"며 "세계명상마을에서 '선 붐'을 일으켜 현대사회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은 "참선 수행을 기본으로 혜민 스님을 비롯한 국민멘토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조계종 유일의 종립선원인 봉암사 인근에 위치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근현대 한국불교 태동지로 평가받는 문경 봉암사는 아직까지도 1년 중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는 외부 개방없이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선수행 대중화의 장애로는 명상센터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수행면담 등으로 지도하는 스님들을 평소 만나기 어려운 것도 꼽혔다. 인근에 위치한 만큼 봉암사와의 활발한 연계 활동이 예상된다.

의정 스님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참선 수행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칠 중진급 수좌 스님들을 양성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키우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영어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명상마을에서 선수행을 접하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공식에 이어 건립추진위는 후원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한반도 선(禪) 전래 1200주년인 2021년까지 2단계 불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명상마을 조감도. 1차 불사로 조감도 중앙 오른편의 웰컴센터가 기공된다.

2단계 불사는 2019년부터 명상실과 숙소동, 무문관 등 본격적인 수행시설이 들어서는 사실상 세계명상마을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290억원에 달한다. 오현 스님의 보시 등 주요 불자들의 동참이 원동력이 된 1단계 불사 기공과 달리 일반대중들의 십시일반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동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불사는 정성이 핵심"이라며 "유력인사, 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대중들이 후원회원 가입 등을 통해 전통 수행법을 널리 알리는 이 곳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은 "2021년까지 문경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불과하다. 수행문화 확산, 한국 정신문화 발전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며 "10월 말 부산에서 간화선대법회를 여는 등 선풍 진작과 기금 모연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훼불사건 근절 위한 문화재 보호제도 수립"

"각 종교계와 정부는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깨뜨리고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이교도들이 사찰서 훼불행위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 이하 종평위)는 6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6월 1~2일 두 차례, 이교도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경주 골굴사에 잠입해 복전함에 십자를 그렸고, 표시석에 '죽을 사(死)' 등을 썼다. 6월 18일 합천 해인사서도 이교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난입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등 구호를 외치며 법회 진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

종평위는 각 종교계와 정부에 △종교차별 근절 △전통 문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각 종교계는 이웃종교와 문화적 고유함을 훼손하는 언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배타적 종교관으로 인한 차별 · 혐오 없는 사회와 전통 문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전법으로 밝은 세상 만들어 가길"

조계종 교육원, 전법 승가결사체 인증서 수여

전법 · 사회 활동 20개 단체에 인증서 전달… 지원금 지급도


승가결사체 인증서를 받은 스님들이 각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에 선정된 20개 단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법 · 호스피스 · 해외구호 · 무료급식 · 환경사업 등을 진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연수인증 단체로 선정 ·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사를 거쳐 20개 승가결사체가 선정됐다. 영국 런던에서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로터스마인드(Lotusmind)'를 비롯해 EM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는 'EM 지구사랑 작은실천', 소년원 청소년들을 위해 심신교화활동을 진행하는 '안양계', 국제구호활동과 노숙자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는 '다나(다함께 나누는 세상)' 등 이색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수다.

이들 단체는 전법교화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 활동에 따른 연수 점수 50점이 부여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1천만원 지원 단체는 1곳이며, 700만원 4곳, 500만원 10곳, 300만원 5곳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과 지원 사업은 승가교육이 기존 강의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승인된 20개 단체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모범이 된다면 한국불교의 전법교화활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승가결사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EM 지구사랑 작은실천(대표 혜솔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에서 활동하는 혜놀 스님은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쌀뜨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며 "EM을 통해 생활하수들을 정화할 수 있다. 이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효기를 개발했고, 일선 사찰과 불교 단체에 보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마인드' 대표 법전 스님은 "지난 2016년 해외 포교에 원력이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런던에 포교당 '로터스마인드'를 설립했다"며 "이곳에서 사찰음식, 다도, 참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현지인과 교포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구호 · 노숙인 급식 활동을 하고 있는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종각 등을 다니며 노숙인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으니 노숙인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전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밥차 운영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건축박물관 인수는 수덕사에 도움"

정묵 스님, 의혹규명 해소위원회에 인수과정 밝혀

MBC PD수첩이 지난 5월 1일 방송에서 수덕사의 한국고건축박물관 인수와 관련해 가장 큰 수혜자로 설정 스님과 속가가족을 꼽은 가운데 수덕사 측이 박물관 인수과정을 공개했다.

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산하 의혹규명 해소위원회는 7월 4일 예산 수덕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고건축박물관 인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인수과정 보고는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이 직접 맡았다.

정묵 스님에 따르면 설정 스님의 속가 친형인 전흥수 대목장이 세운 고건축박물관은 2009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당시 법사감정가 92억여 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타종교계와 학계 등에서 약 6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전 대목장은 수덕사가 인수해 온전히 보존해줄 것을 설정 스님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14년 10월 수덕사 인수를 전제로 설정 스님을 가등기권자로 설정했다.

수덕사는 2015년부터 고건축박물관 인수 논의에 착수, 매매와 증여, 투자 등 구체적 인수 방법을 검토한 뒤 최근 종단 기채승인을 받아 44억1000만원에 박물관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근저당 해지에 34억3000만원이 사용됐으며, 9억8000만원이 전 대목장에게 지급됐다. 아울러 설정 스님과 조카 전욱진 씨의 명의였던 토지 약 3만6049㎡(1만905평)는 수덕사에 증여됐다.

전 대목장 지급액과 관련해 정묵 스님은 "해당 금액은 공사대금 미지급분과 남은 토지 근저당 해지 등에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
사찰 · 박물관 역할 수행

정묵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박물관 인수가 의혹으로 불거졌지만 수덕사의 숙원사업으로 정해진지 오래된 일"이라며 "44억원이라는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입한 것은 전 대목장이 아닌 수덕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묵 스님은 또한 박물관 토지 일부를 종교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사찰과 박물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찰명은 '진법사'로 정해졌으며, 현재의 건물을 보존하면서 전시실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다.

예산 수덕사=윤호섭 기자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스님의 시다림을 받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불교상조회사가 어디지?

BTN 불국토 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 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

“日정부 사죄하라”… 故김복득 추모물결

조계종 사노위, 7월 4일 1342차 정기 수요집회 개최

일본정부 공개 참회 및 2015년 합의 무효화 촉구

“굴욕의 역사 잊어선 안돼”

글=김지원 수습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집전을 맡은 법상 스님이 故김복득 할머니 및 희생자 합동추모 예불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故김복득 할머니를 추모하고, 2015 한일합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7월 4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서 ‘제13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지난 1일 별세한 故김복득 피해자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1)를 비롯, 조계종 스님, 서울여대 ‘평화나비’ 학생 등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시위는 △故김복득 할머니 및 희생자 합동 예불 △‘바위처럼’ 낭송 △인사말 △경과보고 △추모 노래공연 △자유발언 및 추모 연주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사노위 활동위원 유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과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다. 2015년 일방적인 한일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며 “합의 이후 일본군 성노예 제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할머니들을 찾아와 직접 사과드리고, 무엇을 해드릴지 묻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경과보고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공동의 책임’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반세기 동안 침묵, 불처벌, 방관했다. 때문에 가해사실은 공고해졌고 2, 3차 피해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15 한일합의는 잘못됐다’는 메시지는 해당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또 한 분 떠나보낸 할머니들이 평생 이루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외치고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국장 혜공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참가 대중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공개 참회할 것 △일본 ·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전면 무효화 선언할 것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조속 해산하고 보상금 10억엔을 즉각 반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2015년 굴욕적인 한일 합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전 국민은 남북 화해, 평화의 소중함만큼 할머니들의 인권을 되찾는 일도 바란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에선 기획관광으로 10명의 일본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여행사 ‘다비시스템’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역사를 자국민에 알리기 위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직원 아오키 쿠미코(60) 씨는 “이번이 첫 모집이고 오늘 시위 참여가 기획관광 첫 일정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역사교육의 부재로 성노예 피해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며 “기획관광을 통해 자국민들도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팀에 속한 하루키 치에 씨는 자유발언에도 나섰다. 그는 “오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일본 삿포로서 한국에 오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약간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옳지 않다.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화쟁 가치 ‘확산’… 문제해결은 ‘미흡’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7월 5일 서울 전법회관서 ‘8년의 발자취,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8년간 펼친 20여개의 사업들을 되돌아봤다. 발제는 정웅기 화쟁위원이 맡았다.

화쟁위는 첫 현안이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종교가 사회적 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불교의 사회적 실천 영역을 개척한 의미가 담겼다고 봤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로 중재노력이 무산되고,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한계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쌍용자동차 노사갈등(2012) △철도노사 갈등(2013) △지리산 문정댐(2015) 등 굵직한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화쟁의 가치 확산에 의미를 뒀다. 하지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화쟁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더 나은 화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호섭 기자

“미투 고발, 불교 위협한다는 인식 바꿔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종교계 미투 토론회서 주장



“불교계는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자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특히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를 해치고, 업을 짓고,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사진〉은 7월 5일, 각 종교계 미투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로, ‘미투 · 위드유 너머,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란 주제 아래 진행됐다.

김 소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불교계 미투’를 주제로 한 발제서 불교 내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는 “독신 계율을 중시하는 종단에서 성문제에 연루된 승려의 경우, ‘은처승’이란 명칭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특징이 있다”며 “처(妻)의 유무로 구분하는 명칭 자체가 한국불교가 얼마나 남성중심적 시각이 깊이 내면화돼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성폭력 문제가 범법행위 아닌 은처 문제로 치부되는 불교계 풍토를 지적하면서 “문제의 초점에서 폭력은 사라지고 숨겨둔 부인이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돼버린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미비한 처벌과 법적 체계 부실’을 언급하며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한 대안으로 성평등위원회 설립을 제시하고 △불교계 미투운동 전담 △왜곡된 교리를 성평등 관점서 재해석 △대중 법문의 방향 및 내용 제시 △승려대상 성평등 교육 등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서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서 한 발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부분에 다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가해 승려의 승적을 무조건 박탈하는 내용과 관련, 그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배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자비문중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으로 참회원 설립이 제기돼왔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구제를 전제로, 승려로서의 권리는 제한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각 종교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가톨릭에선 김선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기독교에선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장이 발제했다. 이외에도 이미영 가톨릭평론 편집장, 류상태 목사(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⑪

오문옥 부산의료원 호스피스팀 회장

“삶 · 죽음 평등함, 모두에게 알려요”


오문옥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팀원들의 모습.

2005년 5월 관음사 환희복지대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다른 불자를 본 오문옥 씨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부산 홍제사에 다니던 그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업 성취를 위한 기도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호스피스야말로 불제자로서 이어가야 할 수행이자 삶이라고 생각했다.

환희복지대 호스피스과정 14기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지 3개월 만에 오 씨는 부산의료원 호스피스팀으로 활동하게 됐다. 오 씨는 지난해부터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5월부터 봉사를 하고 있다.

“사실 호스피스 교육은 말기암환자 등 죽음과 가까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젊었어요. 50대 초만 하더라도 그냥 봉사라고만 생각했지요. 시키는 것만 하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대할 때 감사함과 죽음 앞에 모든 생명은 공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씨는 많은 이들에게 격려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오 씨는 7년전 한 환자와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남편과 별거 상태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엄마를 만났습니다.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를 특별케어 하게 됐죠. 그런데 그분은 호스피스 봉사를 받기를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봉사를 한 게 없어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기적처럼 나으면 봉사의 삶을 살고, 가시더라도 내생에 봉사의 삶을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 씨는 그녀를 도와주며 오히려 봉사의 소중함을 느꼈다. 마지막 49재를 하고 싶어하는 그녀에게 법당 스님에게 부탁해 임종기도와 재까지 치르게 도와줬다. 앞으로 그녀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그리고 죽음 이후 내생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말 40대만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합니다. 검진에서 말기로 나와서 갑자기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부처님 법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쩌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순 어머니가 4~50대 자녀의 임종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 함께 연락해주고 마지막 가족으로서의 정을 나누게 하는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불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6월 30일 바레인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이 등재결정 직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숫자로 본 산사 세계유산 등재



1425 등재위 발족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걸린 일수

14 등재위 참여 기관수
(조계종 · 문화재청 · 지자체 12곳)

6 국내 · 국제 학술대회 횟수
(국내3 · 국제3)



5 조사 및 연구용역 횟수

3 국내외 전문가 실사 횟수



34 추진위 발간 자료집
학술서 총수

5 홍보기념품 제작 건수
(파일폴더, 에코백, 달력 등)

불교 · 정부 합심… 山寺를 세계에 알리다

'한국의 산지 승원' 등재 어떻게 이뤄졌나

지난 2014년 8월 추진위 발족
조계종 · 문화재청 등 14곳 참여
유산 등재까지 1425일 '대장정'

국내 · 국제학술대회, 조사 · 연구 등
숨 쉴 틈 없이 꾸준히 준비 작업

4곳만 등재 권고에도 포기 않고
정오표 · 외교협력문서 작성하는 등
종단 · 추진위 실무진들 노력으로
각국 대표단 모두 등재 선회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425일. 지난 2014년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現 산사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018년 6월 30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걸린 시간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등재추진위에 참여한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4년이라는 시간동안 '산사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 아래 쉼 없이 뛰어왔다.

佛 · 官, 세계유산 등재 위해 손잡다

한국 전통산사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세계에 인정받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조계종과 사찰,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 2014년에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2014년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은군, 공주시,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영주시, 양산시 등 14개 기관과 세계유산 등재 대상 전통산사인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 등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이 진행됐다. 또한 등재를 위한 전문위원들도 10명을 위촉했다.

이후 등재추진위원회는 등재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6번의 국내 · 국제학술대회와 2차례의 국내외 전문가 예비 답사, 학술총서 발행 등을 통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 실사와 최종 보고서 발간에 만전을 기했다. 연속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의 전통산사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바꿔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게 했다.

일부 등재 권고를 모두 등재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올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됐다. 이후 반년 동안 이코모스의 실사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는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이코모스가 지난 5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타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7개 산사 중 연속유산으로서의 선정 논리 부족 등을 이유로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개 산사만을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의 행보는 빨라졌다. 조계종 문화부와 등재추진위는 이코모스의 등재권고문 중 '산사'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정오표를 제작했다. 작성된 정오표를 등재추진위는 6월 8일 세계유산센터로 발송했고, 이코모스는 정오표 12개 항목 중 11개의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등재추진위는 별도로 지지 교섭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를 통해 각국의 유네스코 대표단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은 출국 전 외교부 차관을 만나 외교적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개국 대표단들 '모두 등재' 지지

6월 30일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로 올라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해 등재권고문을 작성한 크리스탈 바클리(Kristal Buckley) 이코모스 어드바이져가 산사의 역사적 유 · 무형의 가치를 위원국과 회원국에 설명했다.

이후 스페인 대표단이 "7개 산사가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19개국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누구보다 산사의 가치를 아는 중국 대표단의 구오짠(Guo Zhan)과 마곡사를 직접 방문했던 유네스코 짐바브웨 대표부 대사는 "권고문에서 제외된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가 다른 4개 산사와 함께 연속 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헝가리, 보스니아, 노르웨이, 쿠웨이트, 호주, 탄자니아, 바레인 등 많은 위원국들도 "7개 사찰 일괄 등재"를 주장하며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승려들의 예경 · 수행 · 신행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 ·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각국 대표단의 입장 선회는 종단과 등재추진위가 작성한 정오표 등의 역할이 특히 컸다.

실제, 노르웨이 대표단은 "등재추진위가 제작한 보충자료(정오표)를 통해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 3개 사찰의 역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호주 대표단도 "제공받은 외교지지 교섭자료가 충분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정오표와 외교 지지 교섭자료 작성을 담당한 김정은 등재추진위 책임연구원은 "등재권고문이 정식 배포됐을 때 산사의 역사성, 발전 과정에 대한 오류와 이해도가 떨어졌음을 인지했다"면서 "연속 유산으로서의 산사의 독특한 특징과 수행 · 예경 · 선교 겸학 등 무형적 요소들을 대표단이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운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캐나다 대표단은 정오표를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밝힐 정도로 정오표에 대한 찬사가 많았다"며 "적확한 오류 지적과 산사 이해도 높인 정오표와 교섭 자료는 이번 등재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통도사 금강계단 | 부석사 풍경 | 봉정사 만세루 | 법주사 팔상전 | 마곡사 전경 | 선암사 대웅전앞 석탑 | 대흥사 전경 〈사진제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

역사 · 문화 · 신앙 오롯이 간직한 고찰들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산지 승원' 7곳

부처님 사리 모신 불보사찰
영축산 영축총림 통도사

통도사(通度寺)는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산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조계종 제15교구본사이다.

통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佛寶寺刹)'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고 건물 뒷면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치해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상징하는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다.

의상대사 · 선묘낭자 설화 담긴 도량
영주 봉황산 부석사

부석사(浮石寺)는 경상북도 영주시 봉황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로서 조계종 16교구에 속한 사찰이다.

부석사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목조건물에 그려진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는 부석사의 유구한 역사를 일깨워준다.

태화천 잔잔하게 흐르는 물절(水寺)
공주시 태화산 마곡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麻谷寺)는 충청남도 공주시 태화산에 자리 잡고 있다. 마곡사가 위치한 곳은 예로부터 동방 제일의 복된 땅(福地)이라 일컬어지던 길지이다. 절 앞에는 태화천이 잔잔히 흐르는데, 조선시대 문인인 이순인(李純仁)은 골짜기의 풍경을 읊은 시에서 마곡사를 '물절(水寺)'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마곡사는 화승(畵僧) 계보로도 유명해 남방화소(南方畵所)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화승을 대대로 배출하였다.

부처님 법 머무는 미륵신앙 요람
보은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法住寺)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에 위치한 조계종 제5교구본사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의신조사(義信祖師)에 의해 창건됐다. 법주사라는 절 이름은 의신조사가 천축으로 구법여행을 떠났다가 불경을 싣고 돌아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法)이 머무는(住) 절'이라는 뜻이 법주사라 이름을 지었다.

현재 법주사는 금동미륵대불로 유명한 미륵신앙의 요람으로 사적 제503호로 지정돼 있으며, 속리산 법주사 일원 또한 명승 제61호로 지정돼 있다.

最古 목조 건축물 간직한 고찰
안동 천등산 봉정사

봉정사(鳳停寺)는 경상북도 안동시 천등산에 위치한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에 속한다.

봉정사는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명소로,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가람을 지니고 있다.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인 극락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고승 배출한 고요한 수행처
순천 조계산 선암사

선암사(仙巖寺)는 호남 명산중의 하나인 조계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다.

조계산은 원래 중국에 있는 지명인데, 〈송광사지(松廣寺誌)〉에 의하면 "1209년 고려 희종이 어릴 적부터 존경하던 보조국사가 옛 길상사 터에 수선사(修禪社)를 세우고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펼친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하여 '조계산 수선사'라는 편액을 내리고 널리 찬양해 조계산으로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선암사는 봄이면 피어나는 선암매(천연기념물 제488호)와 진입로의 승선교(보물 제400호) 등 아름다운 문화재로도 유명한 절이다.

서산대사 의발 보관한 호국도량
해남 두륜산 대흥사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大興寺)는 우리국토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두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사찰이다.

대흥사는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호국도량이며, 13명의 대종사(大宗師)와 13명의 대강사(大講師)가 이곳에서 배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13대종사 가운데 한 명인 초의선사로 인해 대흥사는 우리나라 차문화(茶文化)의 성지로도 자리매김하게 됐다.

삼보불교 아카데미 강의

깨달음의 사회화… 불교 신뢰 높인다

주제 : 미래 사회의 불교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재가불자 신행모임인 (사)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유억근)는 7월 1일 서울 성북구 삼보정사서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을 법사로 초청해 제44회 삼보불교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했다. 정 前 총장은 "미래 사회의 불교는 현실친화적인 종교로 변화해야 한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재가불자들은 오계 점검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정병조 前 총장은… 1971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 부총장, (사)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금강대 4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정 前 총장의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사상사〉〈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이 있다.

'미래 사회의 불교'가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엄연히 따지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불교가 어떻게 변할 지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발전의 원동력

미래 사회의 종교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의 지금 교세 수준으로 30년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 종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실존하는 종교(Living religion)'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신교가 우리나라서 크게 성공한 이유를 '사회복지'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개신교는 전쟁 이후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지원하는 등 순수복지 쪽에 신경쓰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대중이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 같은 불자들도 개신교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간 조사된 정부 통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개신교나 불교는 상대적으로 교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래프 상으로 45도가량 올라갑니다. 집계된 가톨릭 인구 추정치가 520만인데,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던 가톨릭이 10년 사이 급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종교학자들은 가톨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유가 '장례의례의 현대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례의례, 생전에 미리 염세를 받도록 하는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평생 다른 종교를 믿어왔던 사람도 임종을 앞두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100여명이 참석한 성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장례에 온 사람들 점심값, 수고비, 장지까지 가는 버스 대절비, 성당 대여료 등 전체 비용을 계산해보니 200만원 가량 들었다고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49재를 여법하게 진행하려면 500만원도 부족해요. 결국은 1천만 원 예상해야 하거든요. 7번째 제사 지내는 기간 드는 돈까지 고려하면 서민들 입장서 생각하기 어렵죠. 가톨릭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묘지공원 같은 경우도 평수는 작지만, 한 기당 분양하는 데 30만원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대중에게 어필해서 가톨릭 종교가 성장한 제1원인이 된 것입니다.

불교발전을 위한 과제

그렇다면 우리 불교의 침체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깨달음에 대한 형이상학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깨달음이라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말을 불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불자로서는 속상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세속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하고, 기도하는 모든 수행이 멀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현대적 의미를 대중에게 와닿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어떻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현재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깨달음 관심 없는 재가불자들
의식 혁명 위한 연구 시작해야
재가리더십 위한 오계준수와
포살 · 자자로 스스로 점검하길

또 재가불자 가운데 순수하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리사욕 즉,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불교를 믿어요. 하지만 나에 대한 의지를 타인을 향한 배려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불교 신자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의식 혁명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요. 불교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불교가 사회복지 가운데 미개척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을 경우엔 불교의 미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전시 상황서 통용된 기존 사회복지 개념이 이제는 변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불교는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사회복지를 개척해나가야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 지점은 불자가 아닌 대중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친화적 불교 필요성

이와 관련된 해외불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아직 동국대 불교병원이 만들어지기 전, 병원 경영 선례를 파악하기 위해 부총장으로서 홍콩불교병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제가 들은 얘기는 '최고의 의료진' '값싼 치료비'로 유명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실력 있는 그 분야 최고 의사를 쓰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들에겐 다른 어떤 병원보다 저렴하게 받는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인실 병실 하루 입원료가 한화로 약 2천원 정도였으니까요.

답사를 가서 본격적으로 병원 재정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최고 대우를 해주고, 치료비는 거의 안 받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적자규모가 자그마치 매달 50억원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적자를 어떻게 메우는지를 물었더니 첫째는 홍콩불교총연합회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총연합회에 속한 홍콩 단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홍콩은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가 거의 없을 정도라 사실상 불교국가로 봐도 무방해요. 불교단체들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홍콩불교병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일부 의사들과 100명 이상의 행정직 직원들이 전원 무료로 일한다는 것이었어요. 직원들이 신심 깊은 불자로서 은퇴한 경우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주식 등 다른 수익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 문제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 분들이 무상으로 노력봉사를 한다는 답변이었죠.

저는 병원장의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불교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진정으로 제가 불교를 위해 무엇인가 한 적이 있는지를 되돌아봤어요. 그때 홍콩불교 사례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현실적으로 중생에게 다가가는 불교였습니다. 홍콩 불자들이 불교 교설을 현실성 있게 전하고 구제하는 위대한 불교 그 자체라는 것을요.

재가리더십은 오계 준수서 시작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미래 불교는 재가자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삼보회처럼 우리나라에 재가불자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재가 입장에서 출가자들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입장서도 재가자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은 '재가만의 종단'을 꾸리겠다고 하는 일부 불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부대중'을 잊어선 안 됩니다. 사부대중은 출가와 재가가 서로 자기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머리 깎은 이들 따로, 머리 기른 이들 따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출가자들이 비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재가자들끼리 교단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고민은 여러 재가신행단체서 재가리더십을 어떻게 확충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가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출가 못 당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가리더십은 도덕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도덕성은 현실 측면서 보면 돈과 이성 문제가 전부나 다름없어요. 돈 문제는 어렵지만 깨끗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모으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성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혼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재가리더십이 지지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계 준수밖에 없어요. 저는 재가단체서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하고 포살법회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2,500여년을 이어 내려온 포살, 자자 법회가 있습니다. 두 법회들은 오계 준수를 점검하는 법회입니다. 그런데 조선 억불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최근 일부 사찰서 포살법회를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살법회 진행방식은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합니다. 합장한 채로 오계를 신 · 구 · 의 삼업으로 총 열다섯 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첫째 계명은 불살생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몸으로 살생한 적이 있습니까?'를 자신에게 되묻고, 있으면 참회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불전을 향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시간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불자들도 오계 점검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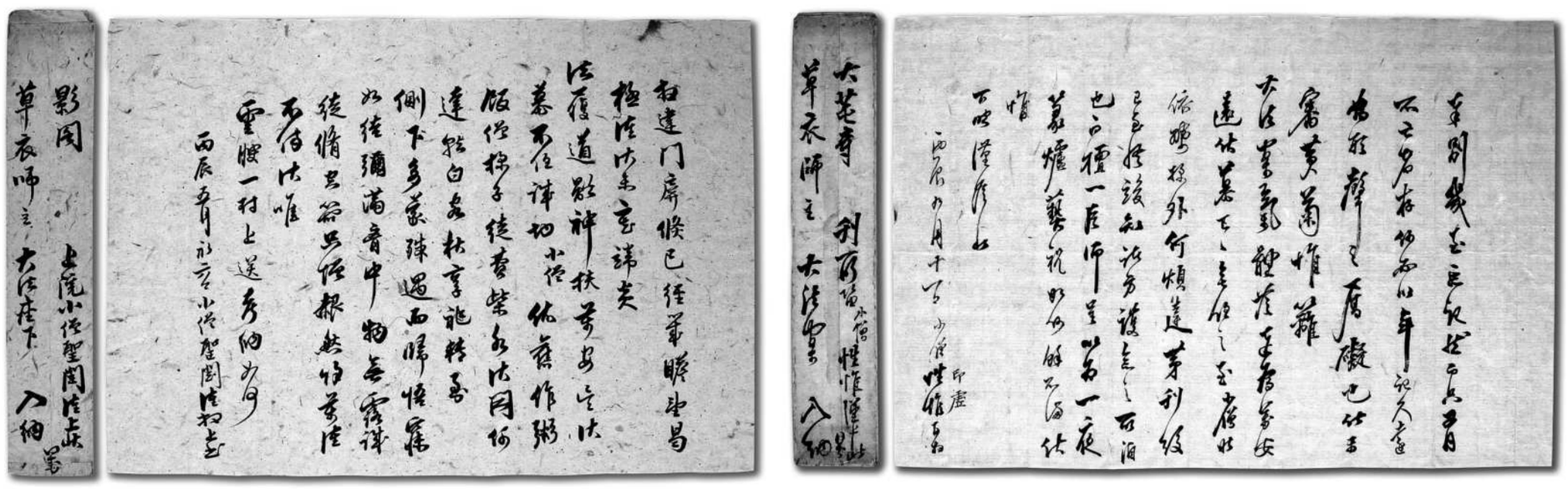
따뜻한 정감 어린 교류 담아낸 서간들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⑬ 성윤과 성유가 보낸 편지



1856년 5월 성윤이 초의 선사에게 보낸 편지〈사진 왼쪽〉와 1856년 9월 성유가 보낸 편지〈사진 오른쪽〉. 둘 다 초의를 그리는 절절함이 담겨있다.

오랜 세월동안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편지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아마 소통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듯하다.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편지를 쓰는 일이 적어진 걸 보면 편지란 이미 사라져가는 소통 수단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은 더욱 손 편지의 의미가 희미해져 간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는 원초적 정서를 일깨워준다. 특히 이들의 성의를 다한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따뜻한 정감이 전해지는 듯 한데 성윤(聖閏)과 성유(性惟)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경우이다.

먼저 소개할 성윤의 편지는 1856년 5월에 보낸 문안 편지이다. 크기는 29.2×41.5cm이며, 피봉엔 "영각 상원 소승 성윤이 삼가 올립니다(影閣 上院 小僧 聖閏 謹上狀), 초의사주 대법좌하 입납(草衣師主 大法座下 入納)"라 하였다. 피봉의 정보는 바로 성윤이 영각 상원에서 초의사주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밝힌 셈이다.

그렇다면 영각 상원에서 수행했던 성윤은 누구일까. 아마 초의를 사주라 칭한 것으로 보아 대흥사 승려일 것이라 추정된다. 그의 편지에 초의에게 차를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그도 차에 능했던 승려라고 짐작된다. 간곡하게 초의의 안부를 물었던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안을 드리지 못하고 소식이 끊긴 사이, 빠르게 세월이 이미 지났습니다만 뵙고 싶은 마음 어찌 다 하겠습니까? 삼가 더위에 법리도체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편안하신지요. 사모함이 구구하며 이 간절한 마음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소승은 옛날처럼 죽을 쑤어 먹는 승려처지이므로 한갓 땔나무와 물만 허비할 뿐입니다. 민망함을 어찌 다 할까요. 아뢸 것은 춘추향제가 이리저리 돌아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특별한 은혜를 입고 돌아와 깨어 있을 때나 잘 때에도 마치 묶여 있는 듯하여 더욱 흉중이 가득 찬 듯합니다. 일에 정성이 들어나지 않는다면 한갓 헛되고 거칠어질 뿐입니다. 민망함이 더합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운유(雲°), 한 봉지를 상봉하오니 받으심이 어떨지요. 1856년 5월 6일 소승 성윤 올립니다.

拜違門屛　已經歲 瞻望曷極 謹伏未審端炎 法履道體 神扶萬安 區區伏慕 不任誠切 小僧依舊1)

作粥 飯僧樣子 徒費柴水 伏悶何達 就白 客秋享祀 轉到側下 多蒙殊遇而歸 悟寐如結

彌滿胸中 物無露誠 徒脩空簡 只增 歎 餘萬謹不備 伏唯雲° 一封上送 考納如何 丙辰 五月 初六日 小僧 聖閏 謹拜上書

병진년(1856) 5월은 추사가 해붕 대사의 화상찬을 썼던 때이다. 몇 달 후 추사는 세상을 하직했는데 그때가 1856년 10월 10일이다. 그가 편지를 보낸 무렵은 막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그가 편지에서 "더위에 법리도체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편안하신지요"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처지를 "소승은 옛날처럼 죽을 쑤어 먹는 승려 처지이므로 한갓 땔나무와 물만 허비할 뿐입니다. 민망함을 어찌 다 할까요"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그가 대흥사에서 지내는 춘추향제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한 터이다. 아무튼 그가 초의에게 문안 편지를 올리면서 "운유(雲°)를 한 봉지를 상봉하오니 받으심이 어떨지요"라고 한 말이 눈에 띈다. 운유(雲°)는 좋은 차의 별칭(別稱)으로 단차(團茶)을 말한다. 초의도 〈동다송〉에도 운유를 언급한 바가 있다.

한편 운유가 얼마나 훌륭한 차인지는 당 피일휴(皮日休)의 〈봉화로망사명산구제청령자(奉和魯望四明山九題D　子)〉에 "맛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듯하고 모양은 둥근 옥뢰와 같다(味似云° 美 形如玉腦圓)" 고 했으며 송나라 황유(黃儒)의 '품다요록서(品茶要錄 ₵' 에 "가령 육우가 다시 일어나 금병(좋은 차)을 본다면 맛은 그 운유라 하고 그 맛의 상쾌함에 말을 잊을 것이다(借使陸羽復起 閱其金 ¿味其云° 當爽然自失矣)"라고 하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운유가 얼마나 훌륭한 차인지는 명대 가중명(賈仲名)도 〈금안수(金安壽)〉에 "손톱으로 금 같은 차를 쪼개고 은사(銀絲)를 가늘게 자른 듯한데 차를 다리면 풍요롭다고 하였다(瓜分金子 膾切銀絲 茶煮云°)"고 하였다. 그러므로 잎차를 즐겼던 명대에도 운유가 가장 좋은 차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윤이 초의에게 보낸 운유는 최상품의 차를 보낸다는 것이므로 그 또한 차를 잘 아는 승려였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소개할 편지는 성유(性惟)가 1856년 9월에 초의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성윤의 편지보다 4개월 뒤에 보낸 편지인 셈이다. 크기는 31.8×46.8cm이며 피봉엔 "대둔사 간행소에 머물고 있는 소승 성유가 삼가 올립니다(大屯寺 刊所留 小僧性惟謹上)"라 하였고 "초의 사주의 대법안에 입납합니다(草衣師主大法案入納)"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간행소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성유가 초의사주에게 보낸 것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성유가 어떤 인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대흥사와 관련이 있는 승려로, 봉은사에서 판전을 건립하고 신중도를 그릴 때 초의와 함께 증명법사로 참여했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이 알려져 있는 셈이다.

상질의 차 의미하는 雲° 보내며
살갑게 초의의 안부 물었던 '성윤'
차에 일가견 있던 승려임이 확인

봉은사 신중탱 증명 참여한 '성유'
초의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 보내

이러한 사실은 '봉은사 판전 신중도(奉恩寺 板殿 神衆圖)' 화기에 "봉은사 판전 중단에 봉안하여 주상전하께서 만세를 누리시고 왕비전하께서 천수를 사시며 대왕대비전하께서 무량수를 누리시기를 기원하며 인연에 따라 비구 의순과 성유 일원을 증명법사로…(奉安 于奉恩寺板殿中壇奉…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千秋 大王大妃殿下壽無疆 王大妃殿下壽無窮 大妃殿下壽齊年緣化秩 證明比丘意恂 性惟 日圓…)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유는 초의처럼 증명법사로 초청된 인물이었던 것이다. 봉은사의 판전은 1856년에 건립되었고 1857년에 신중탱화가 조성되었다. 당시 화승(畵僧)으로는 선율(善律), 유진(有進), 법인(法仁), 진조(進浩) 등이 참여했다고 하며 200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한편 성유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일종의 안부 편지이지만 그가 경전 간행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난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별한 것이 얼마가 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으니 어찌 해로서 오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모습과 소리의 층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삼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노란 국화가 울타리에 가득합니다. 대법안의 기체후는 늘 만안하시지요. 멀리 사모하는 마음 이루다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은 아직도 옛날과 같으니 겉으로 어찌 번거로움을 다 말하겠습니까? 다만 간역(刊役)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여러 곳에서 호위하는 마음이 이를 완성하게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백단향 일편을 올립니다. 밤새도록 전로(篆爐)에 향을 피워 축원하실 때 쓰시면 어떨지요.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피소서. 문후 드립니다.1856년 9월 11일 소승 성유 인허 재배

奉別幾至忘記 然而只有不亡者存 何必以年記久遠 爲形聲之層 也 伏未審 黃菊堆籬 大法案氣體候 連爲萬安 遠伏慕區區 無任之至 小僧姑依疇樣 外何煩達 第刊役已至終竣 知諸方護念之所 _也 白檀一片仰呈 以爲一夜篆爐 祝 如何 餘不備伏惟下照 謹候狀

丙辰 九月 十一日 小僧 性惟 印虛 再拜

성유가 인허(印虛)라는 승려였음은 편지의 말미에 성유(性惟)라고 표기된 곁에 인허(印虛)라고 쓴 묵서 때문이다. 바로 인허라고 쓴 묵서가 초의의 글씨이므로 그가 성유 인허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들이 한동안 관계가 소원했었다는 사실은 "이별한 것이 얼마가 되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가 초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대법안의 기체후는 늘 만안하시지요. 멀리 사모하는 마음 이루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아무튼 편지를 보낸 시점은 "노란 국화가 울타리에 가득한" 계절이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때이다.

그런데 그가 "간역(刊役)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여러 곳에서 호위하는 마음이 이를 완성하게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혹 이 일은 봉은사에서 판전을 건립한 후 〈화엄경〉을 간행 할 때 그 또한 간행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봉은사 판전은 〈화엄경〉을 간행한 후 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간역을 마쳤다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무렵 초의는 추사가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해에 상경하지 못하고 다음 해인 1857년 봄 해남을 출발하였다.

그가 상경한 것은 추사의 상청을 찾아 조문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겠지만 완호의 탑명을 받는 것도 상경의 한 가지 연유였다. 이뿐 아니라 그는 봉은사 판전의 신중탱화가 조상될 때 증명법사로 참여하기 위한 일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무튼 초의는 1857년 상경하여 이 해 겨울을 과천 추사 댁에서 머물다가 1858년 2월 〈완당공제문〉을 지어 평생지기(平生知己)의 상청에 고했다. 물론 차를 좋아했던 추사를 위해 비장했던 자신의 차를 영정에 올렸으리라.

추사가 "오래도록 잊지 말자(長毋相忘)"라는 인장을 새겨 자신의 글씨 위에 찍었던 건, 초의와의 우정을 기리기 위함이었던가. 서로를 잊지 못했던 사람들, 추사와 초의가 그런 교유를 나누웠던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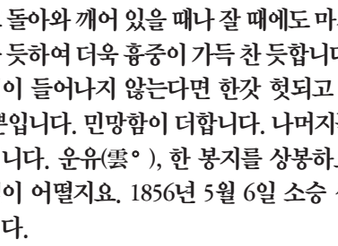
실제 해남 대흥사로 돌아온 초의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이미 자신을 알아주던 벗이 떠난 세상이란 모두가 무의미했던 것일까. 7월 첫날, 창문밖엔 하염없이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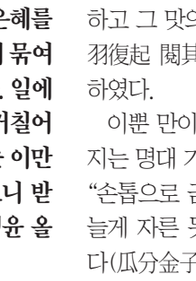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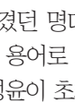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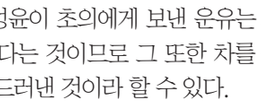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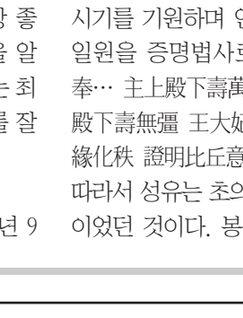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가격: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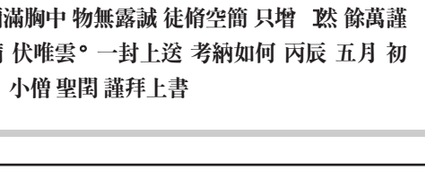


자체 소리 조절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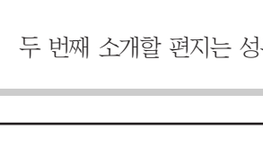
가격: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同行二人, 코보대사 발자취 쫓는 도보 순례

〈弘法大師〉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① 순례를 떠나며



시코쿠 순례길 전도. 카가와 · 에히메 · 코치 · 토쿠시마 네 곳의 지역에 걸쳐 88개 도량을 순례하는 것이 '시코쿠 순례'의 핵심이다.

종교적 순례 의미 되새기며

신앙을 가진 많은 종교인이라면 한 번쯤 나서게 되는 성지순례. 세계 종교로 꼽히는 불교 · 그리스도교 · 이슬람교 모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종교적 여행은 신자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어 보편화 돼 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에서는 25년에 한 번씩 희년(禧年; Iobeleus)을 두어 로마를 순례할 것을 권한다. 이 기간 동안 로마 전체서 다양한 종교 축제가 열려 많은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이 곳으로 몰려든다. 또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힐링과 레저를 위한 순례로 한국에서도 유명하다. 이슬람교의 경우도 마카(Makkah)를 순례하는 것을 신자의 의무(Haji)로 삼고 있다.

이렇게 성지순례가 성행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지를 참배한다는 종교적인 측면과 여행이라는 내용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일상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새로운 체험 속에서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만나는 것은 순례자의 육체와 정신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해준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떠할까? 초기경전인 〈디가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탄생과 성도, 초전법륜, 열반이 이루어진 4대 성지를 순례하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불교역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 중 · 일 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에서도 성지순례는 중요한 신행 활동의 하나로 출재가를 불문하고 유행했다.

일본 고승 엔닌(円仁)스님이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문수 성지인 중국 오대산 가는 길가에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집이나, 식사를 보시하는 곳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아 당시에도 순례가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근현대에 들어 교통이 발달하면서 해외 성지순례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지순례가 인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해외 성지 순례로는 관광을 겸한 순례가 해외 순례의 큰 목적으로 꼽히긴 하지만, '성지순례'를 명분으로 걸고 있는 이상 신심의 증장이나 자기 성찰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 해외순례를 다녀온 많은 불자들이 종교적인 충만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된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히말라야의 어느 힌두 성지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놓인다는 소식을 듣고 강력히 반대 했다고 한다. 신을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떤 고행이나 난행이 없이는 깨닫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기에 지금도 많은 힌두 수행자들은 걸어서 순례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불교에서도 난행고행의 순례로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근현대 중국 고승 쉬윈(虛雲, 1840~1959) 대사는 부모님 은혜를 갚기 위해 삼보일배로 오대산을 순례했다. 당장에 우리가 그러한 큰 신심과 원력을 갖고 똑같이 순례하기는 어렵지만, 직접 발로 밟으며 신심을 다질 수 있는 보석 같은 순례길이 있다.

코보대사 수행로 걷는 시코쿠 순례

최근 불교 순례길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시코쿠(四國)다. 이 이름은 옛날 이 섬이 4개의 쿠니(國)로 이뤄진 것에서 유래한다. 쿠니란 고대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일본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시코쿠에는 아와(阿波) · 토사(土佐) · 이요(伊予) · 사누키(讃岐)의 네 쿠니가 있었고, 현재는 각각 도쿠시마(德島) · 고치(高知) · 에히메(愛媛) · 카가와(香川)의 네 현이 되었다. 시코쿠는 일본을 이루는 주요한 4개의 섬(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중 하나이지만 이렇다 할 공업이 발달 된 것도 없고, 다른 주요 섬들에 비하면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시코쿠란 이름은 성스러운 땅으로 그 이름이 높았다. 서일본 최고봉인 이시즈치산(石鎚山, 1982m), 츠루기산(剣山, 1955m)과 같은 영산(靈山)들과 태평양과 직접 맞닿은 해변의 절벽은 수행자들의 고행처로 사용됐다. 더더욱 시코쿠는 일본 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 코보대사 쿠카이(弘法大師 空海 · 774~835)가 태어난 땅이다. 이 코보대사가 수행한 자리에 세워진 절들을 일주하는 순례가 바로 '시코쿠 88개소(四國八十八カ所)'이다. 약 1200km의 순례길로 모두 1번부터 88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사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순례는, 각 현에 맞춰 발심 · 수행 · 보리 · 열반의 도량으로 불리며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코보대사 수행로 걷는 시코쿠의 길
흰 소복 · 삿갓 착용, 지팡이 의지해
1200km · 88개 사찰을 도보로 순례

2011년 첫 순례 후 3번 더 완주해
유구한 역사의 시코쿠 순례 전합니다

예로부터 이 시코쿠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시코쿠를 두루 돈다는 뜻에서 '오헨로상(お遍路さん)', 혹은 시코쿠를 순례하는 사람이란 뜻의 '오시코쿠상(お四國さん)'이라고 불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코쿠 순례에 나선 이들은 모두 '하얀 소복에 삿갓과 지팡이'라는 복장을 갖춘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이 복장은 수의, 즉 사자(死者)의 복장이다.

왜 불보살을 찾아뵙는 순례에 사자의 옷을 입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죽음'이라고 설명된다. 순례를 하는 동안 순례자는 죽은 이로써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고 그간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순례자들은 마지막 88번 사찰에서 흰 옷과 지팡이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탄생을 위한 시코쿠 순례를 돌기 위해 현재는 연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코쿠 순례를 위해 섬을 찾아온다.

시코쿠 순례길 만든 쿠카이

순례길을 만들었다고 전하는 코보대사 쿠카이는 일본불교사는 물론 동북아시아 불교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느 불교학자는 "중국서 정체된 불교의 담론은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쿠카이와 신란"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사상적 · 수행적인 업적은 어마어마하다.

코보대사는 774년 지금의 카가와현 젠츠지시의 75번 사찰 젠츠지(善通寺)서 지방호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는 유학을 배웠으나 불도에 뜻을 두고 돌연 스스로 출가하여 유명한 산과 바닷가를 돌며 수행하였다. 시코쿠 순례길 위의 사찰과 관련된 수행지들은 대부분은 이때 시작되었다고 한다.

20세가 되던 해 나라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가해 수행을 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불교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804년, 당으로 유학을 떠나 당시 진언종의 7대 조사인 혜과(惠果)를 만나 모든 법을 전해 받고 진언종의 8대 조사가 되는데, 이때 신라의 유학승들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전한다. 실제 진언종의 계보에서 코보대사는 〈왕오천축국전〉으로 유명한 신라의 혜초 스님의 조카뻘이 되고 코보대사 스스로 남긴 기록 중에도 신라의 승려들과 만난 기록들이 보인다. 명확한 사료적 입증이 부족하지만, 쿠보대사의 외가가 백제계 도래인이라는 설도 존재하니 한국과의 인연이 돈독한 스님이다.

810년 일본조정으로부터 진언종의 포교를 인가받아 널리 포교하였고 또 이 기간에 다시금 시코쿠를 방문하여 사찰들을 건립하고 저수지등을 만드는 등 민중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였다. 시코쿠 순례에서는 순례길의 시작을 이 시기로 소급하기에 그 역사를 1200년이 넘는 것으로 잡게 된다.

816년에 진언종의 근본도량으로 고야산(高野山)을, 823년엔 사가천황으로부터 교토의 토지(東寺)를 하사받아 진언종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펴다가 835년. 고야산에서 7일간 명상에 들어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다.

제자들은 코보대사의 법구를 화장하지 않고 고야산의 석실(石室)에 모셨는데, 후에 소식을 늦게 듣고 온 제자가 석실을 열어 보자 머리카락이 자라있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코보대사는 입적에 드신 것이 아니고, 미륵보살이 도래할 때 까지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신다"는 신앙이 생겨났다. 현재 그 석실은 고야산서 가장 성지로 불리는 오쿠노안(奧之院)이 되어있다.

이제 떠납니다. 시코쿠 순례!

필자가 처음 시코쿠 순례를 나서게 된 것은 지난 2011년의 여름이었다. 산티아고 순례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일본에 불교 순례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본어에 대한 자신도 있었고, 불자로서 이왕이면 불교의 순례를 나서자는 마음에 시코쿠 순례를 덜컥 결정해 버렸다.

당시 시코쿠 순례는 국내에 자료가 거의 없었다. 유명 여행작가 김남희 씨가 연재한 순례기와, 다른 작가분이 출판한 순례기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과 순례에 대한 감상이었고 정작 필요한 실용적인 자료는 드물었다. 결국 일본 순례자들이 올린 순례기와 정보들을 참조하여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순례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입적하신 13번 사찰의 前주지 오쿠리 코에이 스님이 하신 "불연(佛緣)이 있는 분들은 생에 한번 순례자가 됩니다"라는 말을 보게 되었다. 순례를 준비하는 한사람의 불자로서 가슴이 뛰는 말이었다. 또 정년퇴임 후 순례길을 걸은 한 일본인 순례자의 말도 순례에 대한 감정을 고무시켰다.

"시코쿠 순례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코보대사가 일체 중생들을 위해 아직도 순례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에 시코쿠 순례길에서는 그 누구라도 한 번은 (코보)대사님의 화신을 뵙게 된다고. 나는 적어도 한 번은 뵌 것 같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떠난 첫 순례는 지금껏 해왔던 모든 순례를 모두 잊게 하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경비를 아껴보자고 노숙하며 미숫가루를 먹던 기억, 작열하는 태양과 몰아닥치는 태풍들. 순례 중에 만난 감사한 인연들은 나를 시코쿠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2012 ·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다시 완주를 하게 되었다. 워낙 순례를 가다보니 아예 내가 일본에 건너가 사는 것으로 아는 지인도 있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시코쿠 순례를 나서게 되는 것일까? 당장 일본 현지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순례에 나서는 것을 '시코쿠병' 혹은 '버릇'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코쿠 순례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

시코쿠 순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동행이인(同行二人)'이다. 홀로 걷더라도 내 곁에는 코보대사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시코쿠 순례길. 순례를 통해 불자로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제 하나씩 펼쳐 보고자 한다.

〈자유기고가〉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소비중독, 금욕으로 대응하면 실패한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⑬ 물욕에 대한 접근

마약을 하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 알고보면 참으로 특이한 형벌이다. 즉 '너는 왜 너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 그러니 벌 받아야 해?' 하는 형벌이다. 자해행위를 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벌이다. 이러한 형벌은 가부장재(가부장적 재화)라고 부른다. 가부장적 관점에서 죄로 다루는 것이지 실제로 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담배도 마약 못지 않게 건강에 해를 끼친다. 담배도 마약처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술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한 때 술이 아예 금지되었던 금주법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사람은 당시 캐나다에서 술을 밀수해서 마셨고 밀수 과정서 마피아가 큰 돈을 벌었다.

현대는 소비의 시대, 소비중독의 시대이다. 소비중독도 마약, 술, 담배처럼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소비중독은 처벌하고 싶어도 어느 수준 이상이 처벌 수준인지 결정하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소비중독이 마약, 술, 담배 못지 않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틀림없다.

이 세상에 쇼핑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한 두번은 경험한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무언가 묻는다면 아마 쇼핑과 게임이 아닐까 싶다.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삶의 엄청난 즐거움이다. 올해에는 한 번도 해외 여행을 못해봤어' 라고 한탄하는 것은 알고 보면 쇼핑을 못했다고 한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에 나가면 당연히 면세점이나 현지 가게에서 명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사는 쇼핑을 한다. 해외 여행 자체도 사실 여행지를 놓고 쇼핑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여행에서 쇼핑의 즐거움을 빼면 아마 즐거움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모두가 삶이 힘들다보니 스트레스 푸는 것도 쉽지 않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2/3 정도는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몸이 파김치가 되어 퇴근해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이것 저것 기웃거리면 눈이 반짝반짝 해지는게 인간의 본성이다. 남자는 자동차를 보면 여자친구보다 더 좋고 여자는 명품 백을 보면 남자친구보다 더 좋다. 몸이 불편하고 항상 피곤하다는 노인네가 백화점에만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앉지도 않고 돌아다니는데 피곤하다는 소리 한 마디도 안 한다는 자식의 말은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묘사한다. 돈이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제한 없이 마음껏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기에 돈을 '자유로운 권력' 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소비야말로 인간 욕망의 극단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쇼핑 때문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여성이 5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한 달 동안 카드를 긁어 살고 월급 나오면 카드 값 갚고 다시 카드를 긁어 한달 살고 월급 나오면 갚는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젊은이가 결혼을 하면 결혼생활에 적응을 못하기도 한다. 부부가 같이 번다고 해도 가정을 위해 적어도 절반의 돈은 내 놓아야 하는데 봉급 전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하던 버릇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 여성이 일하지 않고 전업주부가 되면 봉급의 거의 전부를 가사를 위해 내 놓아야 하는데 이런 극적인 전환을 힘들어하는 신혼 남편이 많다.

불교는 욕망근원 제거하는 종교
물욕·과시욕 참는 게 능사 아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고 체화



그림 · 박구원

별역잡아함경을 보면 "바르게 생활함은 어떤 것이냐 하면, 족성자가 그 재물을 살피어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그 재물 쓰는 것을 조절하여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하며 마치 어떤 사람이 우담과일을 따 먹는데 처음 먹을 적에는 나무에 그 과일이 매우 많더니 벌써 많이 먹고 난 후 7일 동안 취해서 자고 있다가 이미 깨어보고나야 바야흐로 과일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소홀히 쓰지 아니하고 알맞게 잘 처리하며…"라고 설해져 있다. 즉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하니 지출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대학시절에 지방에서 올라 온 친구들이 용돈을 쓰는 패턴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면 초기에 몽땅 쓰고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친구와 잘 분배해서 한달 내내 골고루 쓰는 친구였다. 모두 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했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다.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은 어렸을 때 부터 길러 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갖기 어려운 습관이다. 아무리 늦어도 결혼 전에는 가져야할 습관이다. 오늘날 저소득층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산층은 왜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못할까? 미국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이 부자들의 소비를 흉내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 중산층도 상당수가 과잉 소비에 빠져 있다고 본다. 중산층의 소비는 생존을 위해 소비한다기 보다 생존 이외의 욕망 충족을 위해 쓰여진다. 우리는 옷을 사는게 아니라 상징과 이미지를 위해 돈을 쓴다. 브랜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명료한 신호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브랜드에 목을 맨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만의 세계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습관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소비의 유혹은 언제 이러한 습관을 무용지물화할지도 모른다. 불교는 욕망을 억제하는 종교가 아니라 욕망의 근원을 제거하여 욕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다. 소비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욕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불교수행에 의해 불타는 나의 욕망의 근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명품을 보고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고와 행위가 체화된 사람이 진정한 불자이다.

소비중독은 금욕적으로 대응하면 실패한다. 소비중독은 중도적 사고와 행위가 수행에 의해 체화되어야 대응할 수 있다. 중도적 사고와 행위 또한 인위적 노력이 아닌 체화된 결과이어야 한다. 불교는 중도를 추구하는 종교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스님의 생활은 참으로 금욕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 인도 수행자들의 문화에 비추어보면 불교 출가자의 생활은 결코 금욕적이지 않았다. 바라문교와 자이나교 교도들은 불교 출가자의 생활을 사치스럽다고 비판했다.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제바달다가 부처님에게 당시 수행자들의 삶의 표본에 가까운 금욕적인 계율을 주장하자 부처님은 이를 거부한다. 제바달다는 불교교단 내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을 세우는데 현장법사가 천년이나 지난 뒤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제바달다의 추종자들이 상당한 교세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불교 경전에 나타난 중도는 여러가지 개념으로 설해져 있다. 가장 유명한 비유는 거문고 줄의 비유이다. 거문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소비를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소비가 중도적 소비일까? 별역잡아함경은 "사치하지도 검박하지도 않고 그 중도를 취하느니라"고 설한다. 잡아함경은 "또 어떤 착한 남자는 재물이 풍부하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요 굶어 죽는 개(餓死狗)와 같다고 한다."고 설한다. 부처님은 사치스러운 것도 경고하지만 인색한 것도 경고한다.

지나치게 사치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인색해도 문제라면 중간 정도에서 소비하면 될까? 물론 적절한 소비가 중도적이지만 중도는 꼭 이런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소비를 중간이나 평균값이라고 고집하는 것 또한 극단이며 중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적절한 소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불교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직성을 배격하므로 매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요인, 조건을 고려하여 중도를 판단해야 한다.

가장 싼 물건이 1만원짜리고 가장 비싼 물건이 7만원짜리라고 하자. 1 더하기 7은 8이고 8을 2로 나누면 4이므로 4만원짜리를 구입해야 중도적 소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중도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불교적인 자세가 아니다. 어떨 때는 4만원도 중도적 소비가 아닐 수 있다. 어떨 때는 2만원짜리가 중도적 소비일 수도 있으며 5만원짜리가 중도적 소비일 수도 있다. 중도를 수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요인, 조건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그 결론도 일시적인 중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교수는 자동차, 집, 의복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한 삶을 산다. 예외적으로 노트북은 최고급 명품을 고집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새 모델이 나오면 가장 일찍 사는 얼리어답터이기도 하다. 그를 중도적 소비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중도적 소비인가 아닌가는 개별적으로도 판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판단해야 한다. 100개의 소비중 99개가 중도적 지출이었는데 1개가 사치스러웠다고 그를 소비중독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중도적 소비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100개의 소비 중 99개가 중도적 지출이었는데 1개가 인색했다고 해서 그가 중도적 소비에서 이탈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디자인의 세계에서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젠스타일(zen style)이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름 붙인 것이다. 젠스타일은 '최소 표현주의' 혹은 '미니멀리즘(minimalism)' 이라고도 한다.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는데서 아름다움을 찾는 자세는 불교의 중도적 자세와 일치한다. 과거에는 호화롭고 현란한 디자인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언젠가 서민들이 사용하던 투박한 그릇이나 초가집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단순 소박한 삶은 불교적 관점에서 중도적 삶과 맥을 같이 한다. 군더더기를 완전히 없애고 삶의 핵심만을 남겨 두어야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아이폰의 홈 버튼 마저도 없애려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사례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군더더기를 없애고 행복에 집중해보자.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달라 붙어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 곳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에 낭비된다. 예술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불교적인 미니멀리즘으로 모든 것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자. 이것이 중도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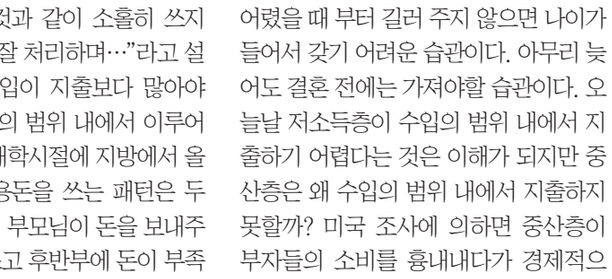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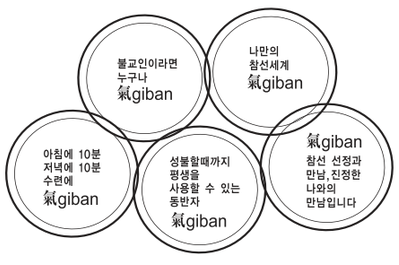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행복한 극락부처학교를 향하여…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㉕ 정토삼부경 1 〈아미타경(阿彌陀經)〉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을까, 십 만억 국토를 지나간 우주 저 편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도 있고, 또 내 삶에도 극락은 있다. 극락은 과거 무량겁 전에 세자재왕 부처님께 법장스님이 부탁해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학교를 건립한 것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0가지 선업수행으로 인생을 잘 살고 나면 극락부처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모르는 사람들이 극락이 우리가 가는 가장 최고의 장소인줄 알지만 그 곳이 끝이 아니라 다시 9개 반(九品)으로 나뉘어 마음공부와 실천하면 그 때 비로소 니르바나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고, 극락세계에 이르러 부처님처럼 되기를 발원하며 수행하여, 드디어 부처님 계신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극락세계는 도착지가 아닌 경유지 일 뿐이니 전심전력하여 수행할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희망의 땅인 극락세계는 모두가 부처가 되는 곳이라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 희망의 땅, 맑고 청정한 세상 극락을 알리기 위한 3가지 경전이 있다. 바로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다. 극락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小經인 〈아미타경〉, 그 곳에 우리를 지극한 즐거움 속에서 성불하도록 해주시는 아미타불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긴 大經 〈무량수경〉과 이제 그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가 담긴 觀經인 〈관무량수경〉이 있다.

한역은 구마라습의 번역이 가장 좋은 〈아미타경〉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한글 번역을 했지만 으뜸을 꼽으라면 1990년 후반 출간된 공파스님의 번역본이다. 경전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전 안에 다 녹여놓았다. 오래 전 읽었지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청량감을 안겨주어 호탕하게 웃으며, 때론 미소 짓고 눈물도 흘리며 볼 수 있다.

한글대장경 제241책 P442~446의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극락세계에서 모든 이들의 부처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항상 공경 공양하는 자세로 매일 아침 꽃밭에서 꽃을 한 바구니씩 따가지고 타방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법문을 듣고 아침 공양 전에 돌아와 공양을 마친 후에 그 날의 법문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 곳에 있는 새들조차 축생의 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극락이란 멋진 삶의 공간을 장엄하기 위해 이루어진 곳이니 그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모두 법문 아닌 것이 없다. 그곳에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불인데 그 분은 중생을 위한 광명을 냄이 끝이 없이 무량하므로 무량광(無量光), 그 분의 수명은 극락중생의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도 짝을 이뤄 무량수(無量壽)라고 부른다.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부처님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 계시는 곳이니 그 곳은 지극한 즐거움만 있어서 극락(極樂)이라 한다.

모든 이들은 이와 같은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 올 바른 수행(正行)을 해야한다. 올바른 수행은 바로 믿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마음이다. 확신을 지닌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앞을 향해 나아감에 멈추려 하지 않는 직진본능처럼 극락을 가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어디서나 '나무아미타불', '원왕생 ' 염불을 해야 한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날마다 부르며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 37조도품의 길, 대승의 보살의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극락에 태어난다.

아미타부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은 오탁악세,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고, 식견이 옹졸하며, 번뇌가 깊고, 근성이 사악하기 일쑤이고, 수명까지 짧다. 그런데 석가모니불이 그런 곳에서 최고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고 부처가 되셨다. 그리고 그 세계 가련한 중생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 하시며 믿기 어려운 극락세계의 나, 아미타불에 대해 설법하고 계신다. 그러니 사바세계 중생들이여, 부디 여기 오면 내 다 부처를 만들어 드릴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이 원하라."

'원컨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왕생, 원왕생(願往生)!'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반야 얻으면 불교 집착도 사라져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㉔ 불교에 대한 집착

마음을 닦아 금강반야를 얻은 수도자는 밝아지는 과정에 어떤 정해져있는 길이 있지 아니함을 잘 압니다. 금강경 제7분에 무유정법(無有定法)을 명(名) 아누다라삼막삼보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도무문(大度無門)이라는 말씀처럼 밝아지는 과정에 정해진 길이 있지 아니함을 잘 아는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요, 염불을 통해서도 밝아질 수 있는 것이며 달마 스님 같은 선지식만을 통해서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효 스님 같은 선지식을 통해서도 밝아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아상만 없으면 곧 보살이요(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금강경 3분), 모든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이일체제상 즉명제불 離一切諸相 卽名諸佛).

우리는 달마 · 원효 스님 같은 분 이외에도 역사상 밝은 분 즉 아상이 없는 분이 적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받지는 아니하였어도 공자님, 예수님 같은 분은 분명 밝은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한결같이 아상이 없으며, 또 아상을 없애는 길이 곧 영생을 사는 길임을 강조하시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강반야를 얻은 보살 즉 아상을 소멸한 보살은 팔만대장경의 말씀으로만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아니합니다.

공자님, 예수님, 또는 마호메트 등 성인들은 모두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제7분에 일체현성(一切賢聖)이 개이무위법(皆以無爲法)에 이유차별(而有差別)(모든 성인은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아상을 소멸케 하여 밝게 한다)이라 하신 것입니다.

금강반야를 실감한 밝은이는 〈금강경〉 공부가 최고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 공부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착각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금강경 공부는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부이며, 어떤 형태이든지 아상을 소멸하게 하는 공부이면 모두 금강경 공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금강경 공부만을 최고라 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이 하는 공부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잘 압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한 각종 이념, 철학, 수련, 종교의 틀에서 모두 벗어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각종 철학이 제각각 다른 듯해도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됨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철학이나 종교가 다 다른 것은 각각 자신의 업보 업장이나 선입견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라진 밝은 사람에게는 이념, 철학 등 모든 것이 다르지 않고 평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자력과 타력이 다르지 않고 유와 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문자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불교나 유교, 또는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은 가르침임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금강경을 실천하면서, 기독교인이나 유교인(儒敎人)과도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쌍차쌍조(雙遮雙照) '이 뭣고'

오매일여(寤寐一如)란 일념불생(一念不生)하고 전후재단(前後裁斷)한 무심(無心)의 경지가 장벽(障壁)과 같다는 뜻이다.

즉 한생각도 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서 번뇌가 순식간에 쉬고서 혼침과 산란을 끊어 종일토록 분별이 없으니 마치 진흙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조각한 사람과 같은 까닭에 장벽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깨침이 멀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 뭣고'로 한생각도 나지 않는 무심지(無心地)에 들면 밖으로의 모든 반연(攀緣)이 순식간에 쉬게 되고, 또 혼침과 산란을 끊어 없애게 되는데 이것이 안으로 마음이 혈덕이게 되지 않는 것이다. 외식재연 내심무천의 경지이다. 결국 도를 성취하려면 쌍차(雙遮)가 된데서, 즉 크게 죽은데서 다시 살아나 쌍조(雙照)가 되어야 한다. 죽어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이것은 산송장이다.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선문禪門의 생명선(生命線)이며, 그것이 '이 뭣고'이다.

식음(識陰)(제8아뢰야식)이 없어지면 오매일여(寤寐一如)의 크게 죽은 데서 다시 크게 살아나는데, 이것을 "깨끗한 유리병 속에 보배 달을 넣은 것과 같다"고 하며 안과 밖이 철저히 밝게 되는 것이니, 진여본성을 깨친 성불의 경계이다. "공허함이 지극하여 광명이 있다"함은 일체가 공한 크게 죽은 경계인 쌍차를 말하고, "청정함이 원융(圓融)하여 빛난다" 함은 크게 살아난 경계인 쌍조를 말한다.

"일체 만법(萬法)이 다 없어진 때"란 쌍차를 말하고 "밝고 밝게 항상 있다"는 것은 쌍조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한다. 그러므로 쌍차가 쌍조이며 쌍조가 쌍차여서 차조동시이니 이것이 중도실상(中道實相)이다. 〈능엄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식음(識陰)(제8아뢰야식)이 만일 다하면 너의 모든 근(根)이 현전(現前)에 서로 작용할 것이며, 그 가운데로부터 보살의 금강건혜(金剛乾慧)에 들어가서 원명(圓明)한 정심(精心)이 그 속에서 변화돼 마치 깨끗한 유리병 속에 보배 달을 넣은 듯하며, 이렇게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사가행심(四加行心)을 초월해 보살소행(菩薩所行)인 금강십지(金剛十地)와 등각(等覺)이 원명하고 입어여래(入於如來)의 묘장엄해(妙莊嚴海)하고 원만보리(圓滿普提)하야 귀무소득(歸無所得)하리라.

> **"일체 만법이 다 없어진 때란 '쌍차'를 말하고 밝고 밝게 항상 있다는 것은 '쌍조'를 말하며 전체적으로 크게 죽은 가운데 크게 살아남을 말한다"**

만약에 식음이 다 떨어지면 둥글고 밝은 청정한 묘심이 그 가운데서 피어나니 십지(十地)와 등각을 뛰어넘어 묘각(妙覺)인 여래의 묘장엄 바다에 들어가서 보리를 원만히 성취하여 무소득(無所得)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행역선좌역선(行亦禪座亦禪) 어묵동정체안연(語默動靜體安然)'이란 말이 있다. 다녀도 '이 뭣고'이고 앉아도 '이 뭣고'이니,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언제든지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맑아 본체가 편안 하다는 것이다. 선이란 일체망상을 떠나서 오매일여(悟寐一如)한데서 '이 뭣고'로 확철히 깨쳐 대원경지가 현발해야 한다.

그전에는 전체가 망상인 줄 알아야 하고, 제 8아뢰야 무기식(無記識)까지도 벗어나 대원경지가 현발(現發)한 그 때가 선인데, 생활속에서 제가불자들의 유일한 수행법이 간화선 '이 뭣고' 이다. 또한 '손법재멸공덕(損法財滅功德)은 막불유기심의식(莫不由斯心意識)'이라고 했다.

법의 재물을 손해내고 공덕을 없애는 병은 심, 의, 식, 에 있다는 말이다. 마음은 제팔 아뢰야식, 의(意)는 제칠 말라식, 식(識)은 제육식을 말하는데 통팔식(通八識)전체를 말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일 주 문



반결제 산행 · 공승법회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7월 10일 가야사지부터 서산마애삼존불까지 '하안거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행복한 불교' 강연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7월 14일 오후 2시 정선 정암사에서 '행복한 불교이야기'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한다.



행복바라미 연꽃축제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7월 14일 봉선사 경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행복바라미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일현 스님 27주기 다례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7월 28일 오전 10시 마곡사 관음전에서 '취담당 일현대선사 27주기 다례재'를 봉행한다.



청소년 캠프 '마음 행복'

신공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스님은 7월 27~29일 장성 백양사에서 청소년 캠프 '나를 찾는 선-마음이 행복해요'를 개최한다.

"청소년 작가지망생 불교소양 싹 트길"

Interview

만해문학기행 여는 김성권 대불청 회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만해백일장 수상자들과
14~15일 선운사 비롯해
미당 시 문학관 등 탐방

"전국적인 행사인 만해백일장이 올해까지 39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하지만 백일장 이후 수상자나 문학에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는데요. 작가지망생들이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문단에 데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해문학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가 작가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 작가지망생들을 위해 '작가와 떠나는 만해문학기행'을 시작한다. 문학기행에 앞서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프로그램 취지를 이 같이 밝히며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만해문학기행은 7월 14~15일 고창 선운사와 미당 시 문학관 등에서 진행된다. 만해백일장 수상자와 일반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학기행에는 김용택 시인이 함께해 예비 문학작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울서 출발하는 문학기행은 첫날 고창에 도착해 가장 먼저 미당 시 문학관을 관람한다. 이곳에서 2시간가량 서정주 시인의 문학세계를 감상하고, 이후 선운사에 방문해 불교 전통문화인 사물체험을 한다. 저녁에는 김용택 시인과 예비 문학작가들이 문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눈다. 이튿날에는 포행과 고창 탐방 등이 진행된다.

문학기행은 4년여 전 대불청이 한 차례 실시했으나 이후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 예산 지원을 받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만해백일장은 대불청이 주최하는 연간 행사 중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해백일장과 인연을 쌓은 학생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대불청 역량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비 문학작가들을 위해 힘을 쏟고, 불교계의 지원이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해문학기행은 올해 탐방 장소를 선운사와 그 인근으로 정했지만 향후 행사를 매년 개최하면서 유수 작가들의 세계관이 담긴 지역을 차례로 탐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소설가 고향인 통영 등 문학의 고장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과 더불어 기행을 연계할 수 있는 인근 사찰 등을 찾아 지루하지 않도록 일정을 꾸릴 계획이다.

"과거 한 차례 진행한 만해문학기행은 당시 참가 학생뿐만 아니라 만해백일장 위원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갖는 특색까지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북콘서트나 작가와의 만남 자리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 책임 규명하라"

시민사회종교계,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42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7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前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을 내세운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 사죄 △사업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및 4대강 재자연화에 당장 돌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호섭 기자

"애국정신 계승은 후손의 도리"

광주 비구니도량 신광사
순국선열 추모천도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천도재가 열렸다.

광주 최초 비구니 수행도량인 신광사(주지 동현)는 7월 3일 대웅전에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주용),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지부와 공동으로 '제17회 신광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천도재'를 봉행하고, 영령들의 극락왕생과 후손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스님, 신광사 회주 경주 스님, 주지 동현 스님,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지부 회원, 각 구청별 관계자와 신도 등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추모천도재는 △위패봉안 △헌화 △불교의례 △봉행사 △추모사 △헌다례 △추모노래 △살풀이 △축원 △천도의식이 연이어 진행됐다.



신광사가 7월 3일 봉행한 추모천도재에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살풀이가 펼쳐지고 있다.

주지 동현 스님은 "전쟁은 수많은 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인명피해와 가슴 아픈 가족 간의 이별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야말로 전쟁이 없고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현 스님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화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뜻을 계승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받들어 이어가야할 일"이라며 "선조들의 영령이 극락왕생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광사는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보훈행사를 진행해 온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중 참 의미 되짚어요"

봉은사, 우란분절 49일 기도 입재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7월 8일 법왕루에서 우란분절 입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봉은사는 49일간의 지장기도에 들어간다.

봉은사는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초재, 3재, 5재, 7재(회향)까지 총 5회에 걸쳐 백중의 참 의미를 되짚어 보는 특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02)3218-4824 노덕현 기자

탈북민 위한 나눔장터 열려

사회적협동조합 연꽃향기, 수원사서



사회적협동조합연꽃향기(이사장 이종찬)는 6월 30일 수원사(주지 세영) 지하 1층 교육관에서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제3회 행복한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이날 나눔장터에는 매주 토요일 수원사 법당에서 정기모임을 갖는 탈북이주민 115명이 참석했다. 연꽃향기는 9월 서울지역 미혼모를 대상으로 행복한 나눔장터를 계획 중이며, 매월 1회의 나눔장터와 비정기적인 나눔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나눔으로 가꾼 도시텃밭

화성서부노인福, 이웃에 감자 나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관장 안효미)은 7월 4일 화성시청 옆 농지에서 동탄시티병원 임직원 ·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30명과 함께 '도시나눔텃밭사업 감자수확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400kg의 감자를 수확했으며, 지역사회 요양원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신화 종합 불사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범종 공장 개업 한정
파격가 할인 판매합니다.

-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 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그 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베트남 양마오 초등학교 식수대 준공식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과 학교 관계자, 학생 · 학부모 등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베트남 초등학교에 전한 감로수

태고종 전북종무원, 양마오 초교에 식수대 준공

베트남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양마오 초등학교에 식수대를 설치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6월 22~28일 베트남 닥랑성 양마오 초등학교를 방문해 정수 식수대를 준공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봉사단, 팜 탄 하이 양마우 초등학교장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600여 명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팜 탄 하이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진성 스님은 "양국이 신뢰와 사랑으로 우호를 다지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구찌구 턴통호이 초등학교에 이어 양마오 초등학교에도 정수 식수대를 설치하게 됐다. 어린 학생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마오 초등학교 학생들이 베트남과 한국을 위해 일하는 동량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단은 학생들에게 공책과 연필 등 학용품을 선물한 데 이어 전주 참좋은우리절에서 기증한 어린이 옷 500벌을 닥락성 우호조직연합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준공한 정수 식수대는 지하 60m에 관정을 설치하고 취수한 물을 한국산 정수기로 정수한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지리적으로 오지인 양마오 초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해 1년분 정수 필터를 함께 제공했으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정수기와 필터를 지원키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란분절, "다양한 모습으로 공덕지어요"

백중 앞서 펼쳐지는 수행 · 나눔 · 기도의 현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극한 효심의 불제자, 목련존자의 마음을 잇는 백중(우란분절)이 다가온다. 선망 조상 천도를 위해 전국의 사찰이 일제히 기도를 시작한 가운데 부산 사찰들이 수행과 나눔으로 백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전달해 눈길을 끈다.

기도 동참자 및 불자들을 위한 특별 금강경 법회가 열린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종호)은 '우란분절(백중) 기도 금강경 산림법회'를 매년 개최해 백중을 특별 수행기간으로 삼고 있다. 산림법회는 7월 8일~8월 25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극락보전에서 열리며 법회는 사시불공으로 시작해 금강경 법문, 천도재로 진행된다. 회향은 백중인 8월 25일 토요일이다.

세부 일정 및 법사는 △7월 8일 입재 법문 지선 스님(백양사 방장) △7월 15일 하림 스님(행복공감 평생교육원장) △7월 22일 종호 스님(미타선원 주지) △7월 29일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8월 5일 하림 스님(행복공감 평생교육원장) △8월 12일 종호 스님(미타선원 주지) △8월 19일 혜성 스님(해광사 주지) △8월 25일 종호 스님(미타선원 주지)이다.

산림법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매일 금강경 독송과 사경으로 수행에 동참하며 사경집은 회향날 천도재 위패와 함께 소각한다. 이는 금강경 법문을 들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함께 담겼다.

미타선원은 "수행과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

수행과 공양 공덕이 함께
회향까지 매주 법석 열려
반려동물 위한 백중기도도
동참금 이웃돕기 나눔 회향

될 수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기간으로 삼아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주제로 산림법회를 연다"고 취지를 밝혔다. (051)253-8687

반려견을 위한 백중 천도 기도도 진행된다. 백중을 맞아 홍법사(주지 심산)는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 축생 위패를 받고 기도한다.

아울러 기도 동참자를 위한 특별 초청 법석이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대광명전에서 진행된다.



미타선원은 7월 8일~8월 25일 '우란분절(백중)기도 금강경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금강경 산림법회서 불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일정은 △7월 15일 입재법회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 △7월 22일 재가자 특별법회 강형진 단장(니르바나필하모닉) △7월 29일 보각 스님(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 △8월 5일 덕신 스님(대구 대륜사 주지) △8월 12일 원택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일진 스님(운문사 승가 대학장) △8월 25일 회향법회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이다. (051)508-0345

백중을 맞아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면 부산대 천불정사(주지 고담)와 금정산 원광사(주지 지광)를 방문하면 된다.

천불정사와 원광사는 매년 백중기도 동참금을 불우이웃을 위한 백미 나눔으로 회향하고 있다. 천불정사는 특히 인재불사 도량으로 국가고시 준비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공양을 대접한다. (051)518-6362

원광사는 백중 기도 동참금 전액을 추석 전에 나눔을 위한 특별법회를 개최해 부산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광사 자비의 쌀 전달은 2002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다. (051)558-8830

"선열의 호국정신 가슴에 새기자"

제11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유공자의 나라 사랑 정신을 돌아보고, 호국의 참된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대한민국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성종)는 7월 2일 '제11회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대제'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봉행했다.〈사진〉



추모대제는 장안사, 고불사, 청량사가 공동 주관했으며 2008년부터 독립유공자 1만4812명과 무명용사 195만명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추모대제는 육법공양으로 문을 열어 △진혼곡 △묵념 △대회사 △추모사 △축문 △헌화 △헌향 △합동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효심사 효문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부산시의장, 민병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해 유가족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오 스님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합동추모대제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가슴에 새기는 자리이자 국가를 바로세우는 일인 동시에 후손들에게 구국정신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박성종 이사장은 "오늘 이 행사로 마음을 모아 한반도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슬기와 화합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즐거운 놀이로 배우는 자녀교육법

양산 통도사 7월 15일 부모대상 전문교육 개최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이와 조화롭게 사는 힘은 어떻게 길러줄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7월 15일 오후 1시 통도사 내 도서관(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하게 놀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행복한 자녀 교육법을 제안한다.

'건강하게 놀자'는 현재 통도사 어린이법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감성 이해, 숲 체험, 예술 활동 등을 설명하고 바른 교육법을 제시하는 시간이다.

1부는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신나는 숲 · 예술 놀이'를 주제로 진행된다. 숲 · 예술 놀이는 자연 속에 뛰어 놀며 탐구하는 능력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을 일깨우는 활동이다. 아울러 자연 체험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돕는다. 강사는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가 담당한다.



통도사 어린이법회에서 진행한 숲 · 예술 프로그램 놀이. 아이들이 통도사 경내를 다니며 자연을 관찰하고 있다.

2부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공동체 놀이로 하나 되는 우리마음'이 진행된다. 공동체 놀이를 통해 경쟁과 결과보단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과정의 중요성을 지도한다. 아울러 통도사 어린이법회에서 진행하는 △인드라망 △삶의 그물망 △화합박수 △아리랑놀이 등 다양한 공동체 놀이도 소개될 예정이다. 강사는 이수진 선생(놀이와 답사 연구소)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통도사 포교국은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통도사는 동국대 숲 · 예술 창의력 연구소와 제1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다가올 부모교육에서 통도사는 제2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도사 포교국장 선림 스님은 "현재 통도사 어린이법회는 불교를 가르치는 종교활동보단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며 "불교를 아이들에게 주입하지 않고 친구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2-718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라 바로 그 해야 할 일에 전념해야 하리.

– 법구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6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저렴한 가격

010-2294-4747

인생상담 능력있는 비구,비구니부전스님 및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동이 민간 의술 학회

당뇨, 간질환(특효), 오십견, 어깨, 팔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
방문해주시면
무료 치유 봉사 해드립니다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산로 263-46 (북가현리 8-1)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 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태명상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도깨비를 내 맘대로 대주스님의 뇌강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전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전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 **비염 치료**

내성이나 항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한달 분 가격 55만원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정법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면 되고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대 또는 싼값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10-7678-553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女 사무장 모십니다

(PC가능한
50세 초중반
출, 퇴근가능)

02) 992-0110

한마음선원문경지원에서 공양주를 모십니다

월(백삼십만원)

연락처 010-9373-3778

기도 하실 분 수행 하실 분 요양 하실 분

청풍호산 성불사(법계선원)

043-644-4366
010-5485-40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시 선돌길
121-55 세심사)

054-856-6388
010-4658-7870

사찰 업무(운전 가능자, 숙식 가능자) 사무장 및 기도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1길 119-5
대한호국불교 황종사

연락처 : 010-8961-5489

친환경 삼베타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저열한 것을 섬기지 말고 방일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견해를 따르지 말고 세속을 증가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 법구경 –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 법당. 요사채. 토지 1,200㎡
- 주변 산사찰. 기도 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2억 8천만원(토지값정도로)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논산 사찰(급)안내
- 마을기도도량.토지 400㎡
- 목조 한옥 법당.요사채. 삼성각
- 운영잘됨. 위치좋음. 건물4동
- 스님사정으로 타지방 불사
- 양도가액 : 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
- 대지 : 임야 14,000평, 가액 : 12억
- 사찰가능 : 대457평,건38평 9500만
- 암자 대지 124평,건물20평 7500만
- 토굴 대지 150평 건물15평 7500만
- 사찰터 토지630평 남향 1억2천만
- 토지만 125평 상수도 남향 2천만
- 통화설명가능, 문의바람

010-8899-8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방문 후 결정
- 몸 만 오시면 됨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평수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 ~ 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천만원

010-5258-1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 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770-2 허가06-2231
공인중개사(중개안내)
- 전국사찰(터) + 암자 + 포교당 + 기도원
- 거래 성실(비밀) 중개로 오랜 경력 신용 쌓았습니다
- 살분 = 팔분 편안히 상담 바랍니다

010-3570-0025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월세50만원
- 통화 희망시간 : 오시, 6시 이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 부지 : 약 1,700평. 가액 : 14억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돌탑 높이 9m30 둘레 13m 돌탑 108개, 요사체 2동 정자각 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 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문의 : 033-562-0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 약 360평
- 사용평수 : 약 500평(하천부지포함)
- 법당,삼성각,약사여래,삼층탑,석등
- 요사채2채,창고3개,주차시설완비
- 가액 : 4억 • 창건 1972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583-4895

토 지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단산윗길 264 지리산 보현사 근처
- 3800여평
- 평당 약 23만원
- 종교시설, 복지시설, 개인주택 및 농가 모두 가능

010-5393-3689
보현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울산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 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7불 등 320등
- 원목3단 수미단,신중단,영단
- 주택,아파트,상가,시장,인구밀접지역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전화주시면 법당 사진 보내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8424-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땅 1,700평, 건물 5동 130평
- 선방을 할 수 있는 명당자리 입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3882-8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5325-3068

멋진 2층 상가 주택 토굴
- 위치 :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대지 : 716㎡ (약 217평)
- 건평 : 1층 158㎡ (약 42평) 2층 105㎡ (약 35평)
- 양도금액 : 3억2,000만에서 5,000만 빼드림
- 대출 : 1억 포함(가격조정가)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임법당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소백산 앞 개울끼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함
- 불기일체, 집기일부, 수도,전기,보일러 유
- 벽돌연와 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총 평수 714평
- 스님 사정으로 양도. 2억2천

주인직 : 010-4747-3468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레베이터)
- 시설:A급(시설비 약 1억 소요)
- 구조 :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대사동
- 평수 : 40평
- 방 2개, 법당, 주방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몸만오셔도 법회 바로 가능
- 스님, 법사님, 보살님

010-8651-35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전망좋은암자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전세 1000만원 월세30만원 또는 전세500만원 월세4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읍
- 건물 : 법당 삼성각준문화제동기와
- 공양실, 요사체, 5층석탑
- 평수 : 8백평
- 가액 : 4억
- 요양원,실버타운,납골당, 묘지조성(수목장)

010-5224-0399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신평역 3분거리
- 1천세대아파트 상가내 반지층
- 면적:170평(법당60평,방5칸,주방큼)
-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법당
- 주위에 5천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 바로 법회가능(모든조건, 시설완비)
- 주차 무제한 가능,휠체어 출입 가능
- 비품,집기,시설일체 포함된 금액임
- 가액: 대출9천안고 1억7천(이전등기)

010-4270-33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 70평 (2층 건물)
- 건물 : 1층30평,요사채,주방,방3개 2층 25평 법당, 스님친견실 방1개
-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종무소 5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 몸만 오셔도 법회 바로 가능
- 가액 : 4억 2천

010-7311-53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대사동
- 평수 : 40평
- 방 2개, 법당, 주방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몸만오셔도 법회 바로 가능
- 스님, 법사님, 보살님

010-8651-35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허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1억 3천

010-3124-3952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 작은 암자터 계획 관리지역 360평
- 측량, 배수공사 완료, 토목공사 진행중
- 소임자리 관계로 급양도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4162-2900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0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 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태국 불교도, '실종 소년' 무사 귀환 발원

7월 2일 '기적 생존' 확인… 동굴 지킨 스님들 '주목'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州)의 한 동굴에 들어간 뒤 실종됐던 소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타까움이 더해가는 가운데, 이들을 위해 동굴 앞을 지키고 있는 태국 불교도들의 절실한 기도가 주목받고 있다. 실종 소년들은 7월 2일(현지시간)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이 확인됐지만 아직 구출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소년들이 실종된 동굴 앞에서 스님들은 몇 날 며칠 기도했다"며 "수색대의 구조 기술과 불교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란히 행해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종자들은 태국의 치앙라이주(州)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로,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 종료 후 관광 목적으로 동굴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다. 당국은 이들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수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동굴 입구에서는 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 가방, 축구화 등이 발견돼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국은 즉각 해군 잠수대원 및 경찰, 군인, 국경수비대 등 1000여 명을 투입해 본격 수색을 시작, 2일 실종된 13명 모두의 생존을 확인했다. 이들은 동굴 내 가장 큰 공간인 '파타야 비치' 인근서 발견됐다.

갑작스런 폭우로 동굴 고립
군경 1000명 투입해 수색
실종 열흘 만에 생존 확인

스님들 동굴 앞 떠나지 않고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 전해

그동안 태국 불교도들은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 것으로 전해진다. 스님들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법문과 명상을 진행하는 한편, 단주를 나눠주며 위로를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들이 실종된 후에도)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동안 스님들의 기도가 빛을 발했다"며 "약 5마일 길이의 동굴 수위가 낮아졌다. 흙탕물이 빠져나올수록 내부 수질이 맑아지며 잠수부의 수색이 원활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교 국가인 태국은 여러 측면에서 종교적 영성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도하는 불교도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동굴 앞에서 상주해 기도하는 승려들뿐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불교도들이 합동 기도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왕차이 티엔시리(Wanchai Thiensiri) 씨는 자신을 종교 회의론자로 밝히면서도 "이곳의 모든 사람이 종교의 힘을 믿게 됐다"며 "기청제(祈請祭, 비가 그치길 바라는 기도)를 지내며 스님이 내게 준 이 부적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망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임시 법당도 설치됐다. 당국은 직접 나서 기도 공간을 꾸리고 향을 피우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다.



태국 스님들이 지난 7월 1일(현지시간) '동굴 실종' 소년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백인남성 훼불' … 기독교 극단주의 우려

미국 종교지도자 40인 성명, '증오범죄 규탄' 촉구

워싱턴서 백인 남성이 베트남 사원 불상을 고의로 파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종교계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불교 전문지 '라이언스 로어'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등 종교 지도자 40명이 워싱턴 타코마 카운티 소재 베트남 사찰서 있었던 공공기물 파손 사건을 비판하고, 기독교 극단주의를 근절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6월 29일 보도했다.

해당 성명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타코마 카운티 사찰 훼불사건'서 야기됐다. 현지 지역뉴스에 따르면 타코마에 거주하는 제레미 클라크(Jereme Clarke)란 남성은 '차 폭 웨 명상센터'에 침입해 불상을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직전 사찰 관계자에 "악마 숭배자!"라고 소리쳤다는 점에서 그가 기독교 신자임을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5일 뒤인 25일, 미국 전역 40명의 종교지도자들은 공개서한을 냈다. 이들은 "클라크가 기독교 신앙을 인종차별적 · 반 불교적 증오범죄에 이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독교 극단주의의 한 현상인 훼불사건이 한 사람(제레미 클라크)의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들 사이에 종교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미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들은 기독교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독교계는 이번 타코마 사건을 통해 기독교 극단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신자들에게 훼불행위는 기독교에 반하는 일임을 알리고,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현장에 있던 스님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화면. 기독교 신자 제레미 클라크가 사찰관계자들에 "악마숭배자"라 외치며 불상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화면제공=뉴스트리뷴

스마트스피커로 만나는 '3분 법문'

네이버 일본법인 'LINE'
7월 하순부터 서비스

방황 · 슬픔 · 성냄 기분에
잔잔한 법문들 흘러나와

앞으로 일본에서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현재 기분에 따른 스님들의 짧은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돼 눈길을 끈다.

일본 언론매체 PRTIMES는 6월 28일 네이버 일본법인 '라인(LINE)'이 7월 하순부터 스마트스피커 '라인 클로바'를 통해 서비스하는 '3분 법화'를 소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스마트스피커에 제공되는 3분 법화는 ㈜요리소우가 설립한 '스님편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다.

3분 법화에서는 스님 4명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방황 · 슬픔 · 성냄 각 3가지 감정에 맞춘 법문이 제공되며, 총 12가지의 짧은 법문이 담겼다. 클로바 스피커 사용자가 "클로바, 3분 법화 열어줘"라고 말을 걸면, 해당 기능이 작동해 현재 사용자의 기분을 선택해줄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방황'을 고른다면, 스님 4명이 남긴 방황과 관련된 법문을 무작위로 들을 수 있다. 3분 법화에는 이토우(조동종 천왕산 서암사) · 시바타(정토종 무량암) · 미우라(일련종 정온결사) · 카사(정토진종 조정원) 스님이 참여했다.

라인 클로바는 이뿐만 아니라 장례나 법회 때 의식 집전을 맡을 스님을 찾아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는 2015년 말 '아마존 재팬'서 스님 대여 서비스인 '마이테라'가 선보인지 2년 반 만이다.

스피커 사용자가 "클로바, 스님을 불러줘"라고 요청하면 해당 기능이 작동된다. 장례 · 제사 · 개명(법명)수여 3가지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콜센터를 통해 스님이 섭외된다. 이와 관련해 라인은 해당 기능의 배포를 기념하면서 클로바 스피커 전용 커버 2종을 제작했다. 디자인은 일본불교 복식을 따랐으며, 일반 판매는 검토 중이다.

연구소 측은 "이 서비스는 스님을 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절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간편하게 스님을 부를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획을 마련해 스님들의 활동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리소우는 2009년 리뷰사이트 운영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후 장례식 준비 지원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2013년 독자적인 전국단위 정액제 장례서비스와 스님 섭외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제휴 장례회사 900곳, 제휴 스님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스마트스피커인 클로바에 일본불교 복식을 본떠 만든 커버를 씌운 모습. 사진출처=PRTIMES



3분 법화에 참여한 스님들. 왼쪽부터 이토우 · 시바타 · 미우라 · 카사 스님.

'악질 죄수' 불교 개종 후 '새 사람' 돼

찰스 브론슨, 불교 공부 매진 및 채식 '화제'

영국의 한 악명 높은 죄수가 불교로 개종한 후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밝혀 화제다.

영국 언론 '데일리스타'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도 유명한 죄수 찰스 브론슨(Charles Bronson)은 불교에 귀의한 후 180도 다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찰스는 1974년 무장 강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3년 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20명의 교도관을 폭행하고 11번의 인질극을 벌이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런 그가 교도소에서 불교를 접한 후 교도관과 동료들에게 사과를 하는 '이상 행동(?)'을 나타낸 것.

동료 수감생 코 더햄(Co Durham · 65) 씨는 "찰스는 평화를 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다"며 "그는 스스로 불교를 공부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불교를 신중히 전파한다. 그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찰스는 산산조각 났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폭력'을 완전히 버렸다"고 웃어보였다.



불교에 귀의한 후 180도 다른 수감생활을 해 화제가 된 죄수 찰스 브론슨(Charles Bronson). 사진출처=데일리스타

그에 따르면 찰스는 불교에 따라 육식도 끊고 채식주의자로 거듭났다. 이와 관련 '데일리스타'는 소식통을 인용, "찰스가 동물의 죽음에 사람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육식을 중단했다. 그는 채식주의자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의 불교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은 '날개가 달린 달걀'을 표현했는데, '육식 금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사랑으로 다스리는 탐욕과 성냄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3. 자비수관

4) 수행현상과 내 마음 보기

자비손이 몸에 접촉하게 되면 접촉이라는 심리와 경각심이 일어나는데 이를 작의(作意)라고 한다. 그 다음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일어나고,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언어문자와 결합하고 이미지화하는 표상작용이 일어나며, 그 이미지에 선악 등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는 사(思)의 심리가 일어난다. 그런데 접촉에 의한 경각심이 일어날 때 그 자극은 무의식 속에 있는 갖가지 정보들이 밖의 대상을 따라 일어나도록 한다. 감각을 통해 표상과 의지작용으로 나타나는 심리들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적인 심리와 감정이 묻어있는 심리라면, 내 밖의 대상과 관련 없이 내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출세간의 위빠사나

접촉으로 일어나는 수행현상은 다양하다. 깊숙이 숨어있던 트라우마도 나타난다. 그밖에 황홀한 빛이나 행복감, 기쁨, 아름다운 동산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위빠사나 지혜를 장애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 나타나는 현상만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한다면 세간 위빠사나라고 한다. 세간의 세와 시간의 간은 공간이다. 즉 세간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라는 뜻으로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공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의 위빠사나가 필요하다. 10년이든 20년이든 현상만을 알아차리는 명상은 왕초보자라는 사실이다. 설령 선정을 얻었다고 해도 출세간의 위빠사나는 아니다. 세간 위빠사나는 출세간의 선정을 얻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생기지 않아 생각 속에 빠지거나 분노조절하지 못하거나 탐욕을 참지 못하는 격한 감정에 빠지는 감정의 속박을 그 뿌리까지 완전히 잘라내지 못한다. 또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알아차림도 현상을 알아차리는 명상에서 그 현상의 법을 선택하여 알아차리는 명상을 해야 지혜가 생긴다.

칠각지를 보면 그 뜻이 분명하다. 칠각지 첫 번째가 염각지(念覺支)이고 두 번째가 택법각지(擇法覺支)이고 세 번째가 정진각지(精進覺支)이다. 그 뒤로 희각지(喜覺支) 경안각지(輕安覺支) 정각지(定覺支) 사각지(捨覺支)이다. 각지라는 뜻은 깨달음의 요소, 깨달을 수 있는 고리라는 뜻이다.

염각지는 정념(正念)으로 알아차림이다. 그런데 택법각지는 현상의 알아차림에서 그 현상의 법을 선택하여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택법이 될 때 비로소 출세간 위빠사나 수행이 되는 것이다. 현상의 법이란 어떤 현상이든 공통되는 현상이 법이다. 예를 들어 자기부터 온 우주가 무상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무상이 법이 된다. 무상한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다. 태어남과 죽음인 생사이다.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서 아끼더라도 그 물건이 파손되면 만족스럽지 않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애인이 변심하면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또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불만족이 바로 고(苦)이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롭다. 그리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무아이다. 괴로움을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만족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는 무아이다. 그렇게 자기부터 온 우주가 그대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 현상의 법을 선택하여 알고 정진해가면, 기쁨이 생기고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며 선정을 얻고 평안에 이르게 된다. 현상을 모양과 색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법인으로 알아차려 가면 생사에서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냥 초보자다. 그런데 왜 나타나는 현상만을 관찰하게 되는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이는 법을 보는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바르게 명상하는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하다.

현상만 알아차리는 명상은
生死 괴로움서 못 벗어나
자비손으로 자비심 키우고
긍정적인 감정 전환시키길

자비심은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준다. 따라서 탐욕과 분노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번뇌도 줄어들고 사라진다. 자비심을 증장하는 사무량심 명상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자비심은 탐진치 등 부정적인 심리와 잠재돼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게 하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자비손으로 몸을 관찰하게 되면 자비심이 생기고, 그 다음은 현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삼법인을 보는 지혜가 생긴다. 나아가 자비심은 그대로 보리심을 일으킨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염원을 갖고, 효과적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따라서 중생구제는 자비이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지혜이다. 그러므로 자비수관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인 것이다.

내 마음 보기-자비수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불편한 마음이 늘 가슴에 남아 있다면 가정과 사회에서 언젠가 폭발할 소지가 있다. 이때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방법은 상상 속에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초대하여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며 자비심을 주는 것이다. 만일 본인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역시 그를 초대하여 용서를 구하면 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상상 속에 초대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므로, 결국 나의 심리를 초대한 것이며 나의 꼬여있는 심리를 푸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본인의 심리를 자비심으로 치유하여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는 명상이다.

그래서 자비수관의 자비관은 내 마음 보기 자비수관이기도 하다. 우선 자비의 뜻부터 살펴보자. 뜻을 살피는 것은 문장을 통해서 또는 법문을 듣고 뜻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는 지혜이다. 이와 같이 문장 속에서 법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또는 법문을 들어서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이 곧 문혜(聞慧) 명상이다.

자(慈)-사랑

사랑이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랑은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고 주변 환경까지 변하게 한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애(愛)가 있고 자(慈)가 있다. 애(愛)는 물건이나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소유함으로써 일어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소유할 수 없을 때는 증오로 바뀌고 그 대상을 파괴시킨다. 반면 자(慈)는 무소유이며 도리어 상대에게 주어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 무소유의 이치를 사유하고 실천할 때 소유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속성이 무아이며 소통이기 때문이다.

사랑 자(慈)의 사랑은 무소유라 상대를 보호하게 되므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깨달음의 즐거움을 준다. 상대가 미워하고 밀쳐내고 해치더라도 성내지 않고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여 독립된 것이 없어 공성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생명 있는 이들에게 먼저 번영이 있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며, 번영과 이익을 행하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특성이다.

사랑이 사람이나 뭇 생명에 이익을 주는 특성이 있다면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유함으로써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탐욕은 사랑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사랑의 가까운 적이 되며, 성냄은 사랑의 성품과 다르므로 먼 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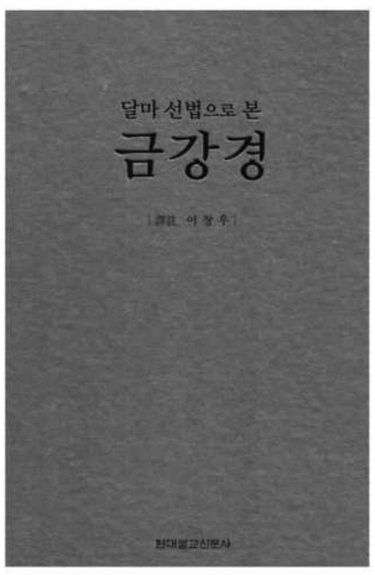
이러한 탐욕이라는 적은 사랑이 주는 특성으로 항복 받을 수 있고, 성냄이라는 적은 무소유라는 사랑으로써 항복 받는다. 따라서 사랑은 성냄이 많은 이를 깨끗하게 하므로 원한, 성냄을 빼버리는 원인이 된다. 성냄과 멀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곧 사랑이 구족된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은 탐욕과 성냄임을 알았다. 탐욕과 성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될 때 욕망과 성냄으로 인한 단절과 소외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것이다. 그로부터 행복이 싹튼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린 아들과 딸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며,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과 같다.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우정 등도 마찬가지다. 설령 원수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대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적대감이 사라진다. 즉, 화내는 감정이 봄눈 녹듯하여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은 자신과 상대와 그 환경 모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시킨다.

사랑과 연민은 모두가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랑은 단절로부터 관계성을 회복시켜주어 행복을 만들어낸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핵심은 감로수를 부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축원에 있다. 감로수를 부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축원 자체가 곧 욕망과 성냄을 없애주며 사랑을 증폭시켜준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
19,000원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시아문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화 : 02)2004-8213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물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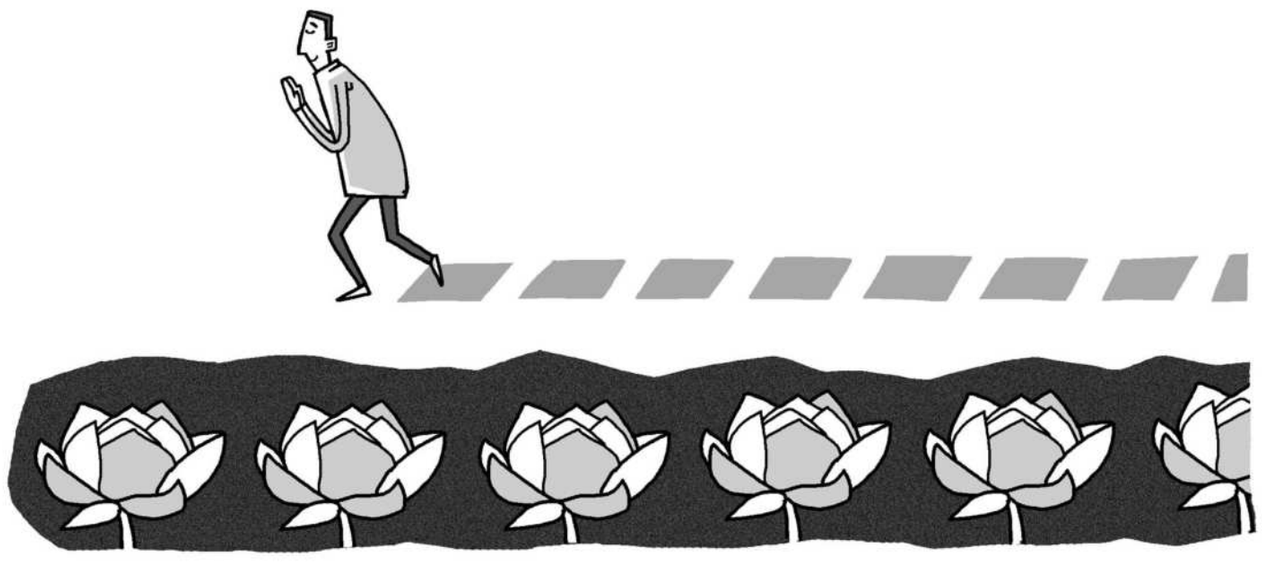
걸음마다 연꽃이 피었다는데

질문 벌써 연꽃 철이 다가 와서 저희 동네에도 화사한 연들이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저의 삶도 또한 나와 내 주위를 맑고 향기로움으로 채워 나가기를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탄생 설화에 보면 탄생하셔서 일곱 발자국을 떼셨고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신화적인 표현으로만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진흙땅에서 연꽃이 핀다고 했죠? 그 모든 고난을, 자성의 고난을 다 겪고 나면 홀연히 연꽃이 피듯이, 저런 진흙땅에서 연꽃이 피는 거야 누구나가 보고 누구나가 말하고 누구나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고 한 거죠. 마음이 체가 없는데 묻을 건덕지가 있어야 묻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묻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관습과 집착과 욕심과 애정과 원한, 이런 모든 게 쌓여서 연꽃이 피지 못하고 자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진흙땅에서 연꽃이 피어도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는 그 뜻을 한번 새겨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인간의 꽃이, 즉 마음이 홀연히 피어나면 그 꽃이 바로 마음의 연꽃입니다. 이 마음의 연꽃이 피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연꽃은, 즉 '육근(六根) 육진(六塵)' 이렇게 할 때, 육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연꽃을 참나라고 이름해서 붙이는 거죠. 참나를 찾는 데에 그 방편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진(漏盡)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일곱 발자국을 떼었는데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연꽃이 발밑에 피어나서 그걸 밟고 나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을 때에, 즉 말하자면 용무입니다, '내가 이 발자국을 떼어 놔야겠다.' 하고 떼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갈 때가 되면 그냥 그냥 갑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하나하나 떼어 놓을 때, 뒷발자국은 없어지면서 앞발자국 떼어 놓을 때마다 그것이 용무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법이다 이겁니다.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 있는 한 개체가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그러니까 연꽃으로 비유하자면 '내 마음이 연꽃이 피어나듯이 움죽거린다' 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발짝 떼어 놓을 때 내 마음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움죽거린다 이겁니다. 움죽거리는 연꽃이란 얘깁니다. 지는 연꽃이 아니라 움죽거리는 연꽃! 그래서 "연꽃이 피게 되면 지는 것도 없고 피는 것도 없는 것이 연꽃이니라."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마음의 연꽃을 밟고 일곱 발자국을 나왔다' 이러는 건,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본 뿌리, 즉 불종(佛種)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발자국을 떼어 놓는다고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또 타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찾아야 하는 거죠. 내 몸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갑니까, 그냥 놓고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은 아무 요동이 없이 그냥 발자국을 떼어 놓죠.

살림살이도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왜? 살림살이도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이 발자국 떼어 놓는 것처럼 순간 보고 흘러가고 이것 보고, 이것 보고 흘러가고 저것 듣고, 저것 듣고 흘러가고 이것 듣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내내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붙들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게 놔지질 않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짢아도 한 찰나 좋아도 한 찰나인 것을 좋다고 붙들고 즐겁다고 야단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또 언짢으면 언짢다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냥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면,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럴 때, 그 과정을 내내 붙들고 그냥 '어떡하면 빠져나갈까.' 하고 온통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일체를 다요.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숟가락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길래 그거를 몽땅 놔 버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만 거기다 놓고 그냥 뛰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도를 다 해결하고 참 고맙다고 하시기에 당신한테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질 않아요. 흙물이라면 흙물대로 놔 버려야 새 물을 또 쓸 텐데, 흙물 담아진 거를 그냥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새 물이 들어올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질문 "내가 없다. 나는 공해서 없다."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번연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울고불고 화내고 하는 이놈은 누구입니까?

답변 참,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상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마음내기 이전을 말해서 자기 불성이라고 하죠. 영원한 근본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法身)이라고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化身), 응신(應身)이라고 하죠. 화신은 바뀌지는 걸 말하고 응신은 서로가 대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안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몸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냐, 심장이냐, 위냐, 식도냐, 방광이냐, 콩팥이냐, 정맥이냐, 동맥이냐 하는, 일체 이름해서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동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작용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알아보신다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나기 이전에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을 냈을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몸이 움죽거릴 때나 육체 속에서 정맥 동맥이 움죽거릴 때, 또는 눈귀가 움죽거릴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내 한 그릇에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한 그릇에.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모두 본인이 하는 거죠? 남이라고 할 수 없죠? 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어떠한 거위 한 마리도 나 아님이 없죠? 그러니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뛰면서 이어져 돌아가는데, 정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나는 공동체야! 공동체니만큼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이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손도 손 없는 손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없는 발이 한자리를 디뎠다. 이게 평발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작용하는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여러분이 법신이자 부처님이자 바로 화신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로써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응신으로서 베푼다 이겁니다. 타의의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나 자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 자체부터. 나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요. 나 자체가 나왔으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바로 악업 선업이 인과가 돼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즉 정자와 난자를 말하죠. 그래서 합류화돼서 합성 체제로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내 몸뚱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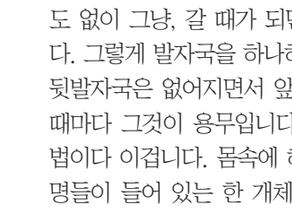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밥죽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 A17면에서 계속

이가 작용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체가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랴, 남편 노릇하랴, 아들 노릇 하랴, 형님 노릇 하랴, 아우 노릇 하랴, 사위 노릇 하랴, 친구 노릇 하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회사나 직장에 있다든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을 때 또 이름이 붙죠? 그러니 따로따로, 몸뚱이 체가 따로 있어서 따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아주 묘법이죠. 그게 묘법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여보!" 하면 뜻과 행과 말이 동시에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버지 노릇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거나, 그 지금 말씀드린 거나 모두가 하나로 통과가 됩니다. 이 모두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모두가 공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물이 있으랴. 물이 없으니 강을 건널 게 있으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한 찰나, 찰나라고 하는 소리도 그 까닭입니다. 찰나에 아버지가 됐다 찰나에 남편이 됐다 이렇게 하듯,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찰나에 바로 칠성부처가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약사가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화해서 나투죠. 자동적으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걸 납득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도 동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서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지장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든가, 어떠한 이름이든지 그거는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들이다 하는 거는 바로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이름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나 주어졌지만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이름이 진실하기도 합니다.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본다면 그렇게 공하고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하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권세나 모든 게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한다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마음의 꼭지에 달려서 끌려다니고 움죽거리는 체(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놓아야 하는 이유는

질문 나라는 것은 본래 없고 일체가 다 주인공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일체가 다 주인공이라면 굳이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다시 좋게 굴려서 다스려서 놓으라고 하심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께서 나쁘고 좋은 건 다 아시죠? 이거 하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도 강도질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번연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 하면,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다 하면 주인공입니다. 생명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종합해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부처인 줄로 아는 것도 또는 부처가 아닌 줄 아는 것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벌여 놓고 어저께 벌여 놓은 게 오늘에 닥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것 당신이 해결해라.' 이거지, 누가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어 주고 대신 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거둬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자기가 잘못 저질렀으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잘했으면 자기가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품을 발견해서 제대로 걸음을 걷게 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자기한테 되놔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됐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일들을 하고 모두 행하고 생활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딴 놈이 해 주는 거 없죠. 각자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실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주인공한테 되놓으라는 거고 되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입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거는 한계가 없고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기가 저지른 거 현실에도 자기가 저지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모든 걸 당신이 하는 거니까 몰락 당신한테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거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생활 전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다 되놔서 입력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자리에다가 되놔서 되입력이 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현실에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자꾸 놓고 관(觀)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아주 하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건 여러분, 각자 여러분께서 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의 뿌리요, 주인공이지 다른 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서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인공이 모두 하는 거, 바로 주인공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각자 여러분이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을 주인공한테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게 없죠.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심성(心性)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주인공에다가 관하고 그랬는데, 주인공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으면 타고 올 수도 있어야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해야 이 끊임없이 이어서 진리의 길이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잘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선장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처럼 잘못하게 되면 잘못하지 않게 가차 없이 쳐서 거기다가 되놓고 잘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너무도 잘못하고 잘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게 하고 또 잘 안되는 거는 '아, 나를 가르치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돌려서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돌려서 놓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도 알고 되는 것도 아는구나!' 해서 안 되는 거와 되는 거 그 가운데서 진짜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리고 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내리고 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되고 못되는 그 가운데에 그 자유인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주인공 가운데서 바로 내 성품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공(空)했으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되놔라 이겁니다. 무슨 믿고 못 믿고가 없어요.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이전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타고 났으면 주인공이자, 바로 주인공이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상대를 겪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을 주인공 자기한테다 다시 '네가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마음의 계발을 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른다면 그 가운데서 성품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발전시키려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를 주인공에다가 모두 되놔라. 잘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잘못하는 건 잘하게 굴려서 놔라." 하는 그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 **'마음의 연꽃을 밟고 일곱 발자국을 나왔다' 이러는 건,**
>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며**
> **이러한 근본 뿌리, 즉 불종(佛種)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의 길을 닦고 안 닦는 것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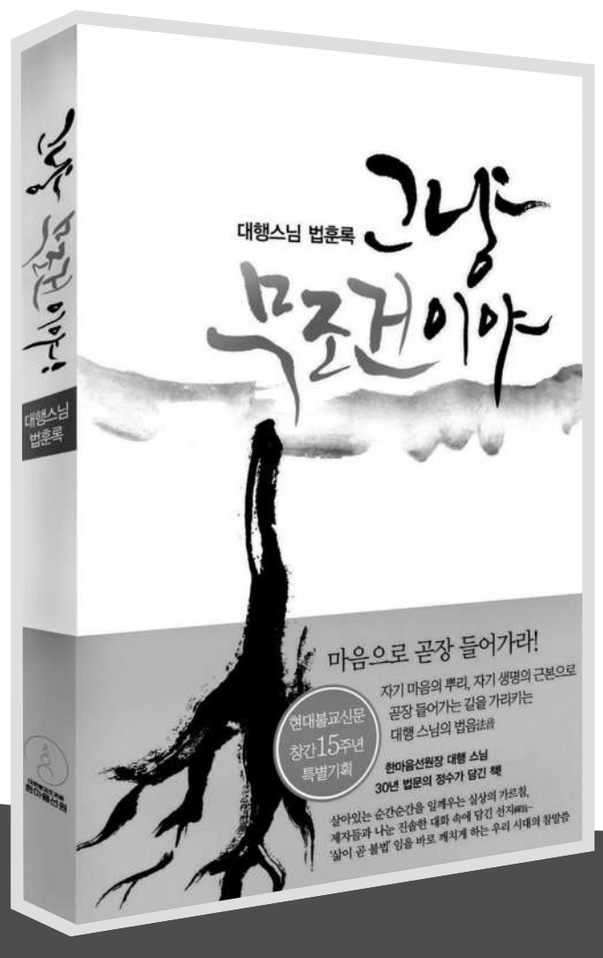
질문 조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그 길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닦아 주는 거와 안 닦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요.

답변 차이가 많죠.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이 몸속의 업보, 그 자기가 산 것대로, 지은 것대로 업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게 또 거창하게 말이 나오네요.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자체가 만약에 부부 사이에 임신이 되려고 하면 그 업보와 더불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보 있는 집에 또 업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걸 모르니까 그 의식들이 그냥 자기가 살아 있는 줄만 압니다. 살아 있는 줄 알고 자식들한테, 이 집 저 집 다니던 의식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아, 부모가 왔는데도 대척도 없고 말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봐도 본체만체하고 아, 이러니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의식들이. 그래 가지고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냐고 그냥 화를 내고 발칵 뒤집으니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그리고 말하자면 유전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연성 그것이 저거 하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고치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또.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식구, 친척 이런 데로만 다니면서 백 년이 가도 그대로고, 그러니깐 그 집안 내에서만 뱅뱅 돌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집안에 개를 기른다든가 소를 기른다든가 고양이를 기른다든가 짐승을 기른다든가 하면 또다시 인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까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잠자리하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잠자리를 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거짓말 아닙니다. 자기 차원이니까.

또는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자기 업식들이 그냥 뱀으로 보인다든가, 즉 말하자면 독사로 보인다든가 짐승으로 보인다든가 귀신으로 보인다든가 그냥 모든 게 그렇게 늘비하게 쫓아다니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또 강을 건너려 해도 강을 건널 수가 있어야죠. 그걸 피해서 건너뛰려고 애를 써도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즉, 강을 건너야 모든 업식에서 벗어날 텐데 강을 아무리 건너려 해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 죽을까 봐. 뱅뱅 돌아서 숨어 다니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블랙홀이라고 하지마는 사람의 생명 근본 자체가, 소용돌이가 돌아가는 것을 불바퀴라고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합니다. 타 죽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더 많은 세계유산 등재 바라며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미술사연구소장

지난 6월 30일 한국 산사 7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1천년 이어진 사찰 역사성 인정

이코모스, 4곳 등재 권고했지만
정부 · 종단 노력, 등재 성공 '찬사'

불교 유산 세계에 인정받기 위한
종단 내 세계유산위원회 구성해야
세계유산 등재 방안 연구 필요

오랫동안 고대해마지않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드디어 6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네스코가 정한 엄격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등재된 7개 산사인 양산 통도사 · 영주 부석사 · 안동 봉정사 · 보은 법주사 · 공주 마곡사 · 순천 선암사 · 해남 대흥사 등이 모두 이 기준에 맞아 떨어졌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7개 산사 모두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역사성이다. 유네스코는 우리 7개 산사가 모두 천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처음 봉정사, 마곡사, 선암사는 역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제외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와 조계종단이 이를 충분히 해명하여 모두 등재에 성공했다고 한다. 발 빠른 신속 대응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성의 문제다. 7개 산사 모두 천년고찰일 뿐만 아니라 법의 등불이 꺼진 적 없는 사찰들로서 1000년 전 창건 때부터 계속 전승되어온 고찰인 것은 사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역사성과 지속성을 알려주는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들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7개 산사에 풍부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들 산사에는 인도나 중국과는 달리 승려들이 수행에 몰두하고 신도들도 신앙 활동에 전념하는 등 신행활동을 창건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화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산사라는 한 공간에서 신행과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는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을까. 세계유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한 가치와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세계유산 지정물들이 정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바로 세계인들의 조건 없는 신뢰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등재가 계속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바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필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주문사항은 △비지정건물 관리방안 △종합정비계획 △관광객 대응방안 △사전협의 등이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문화유산에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총무원 문화부 성보문화재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실무자와 함께 실제적인 점검관리와 대책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불교세계문화유산도 포함하는 총무원 세계유산위원회는 보존 위원 5명 내외, 전문위원 5명 내외, 실무자 5명 내외가 상설로 활동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위원회는 보존,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불교세계문화유산을 더 많이 등재하도록 하는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지리산과 화엄사, 설악산과 신흥사 같은 단위 사찰, 선종사찰이나 교종사찰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화엄사의 화엄석경이나 경주 창림사 법화경 석경 같은 석경류, 수많은 불교 목판이나 전적 등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에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기자

고개 든 훼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한동안 잠잠했던 훼불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6월 중에만 2건의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1~2일 한국 선무도 본산인 경주 골굴사에 이교도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잠입해 복전함에 십자가를 그리고 사찰 표지석에는 '죽을 사(死)'를 낙서했다.

6월 18일에는 법보종찰 해인사에 이교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난입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법회 봉행 중이었던 해인사는 이교도의 행패로 법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사실 이교도가 행하는 훼불행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난다. 이유는 명확하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교도에 인한 훼불행위에 대해 대부분 훈방이나 손괴 처벌 정도만 받고 있다. 불상 등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순 난동 행위와 손괴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각 종교계와 정부는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깨뜨리고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종교계는 이웃종교와 문화적 고유함을 훼손하는 언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배타적 종교관으로 인한 차별 · 혐오 없는 사회와 전통 문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 대책은 불교계가 오래 전부터 제정을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 성별 ·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현재 이교도들의 행위는 소위 증오범죄에 해당된다. 단순히 광신도들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

미국은 1969년 연방증오범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증오방지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서는 벌금형 및 1년 이내 구금, 총기 등 무기사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징역, 납치 · 성폭행 · 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형 또는 사형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 종교화합유지법을 제정해 다른 종교단체에 대한 적대감, 증오, 악의, 또는 적개심을 일으키는 자와 이를 종교단체나 기관을 선동하거나 부추기거나 장려하는 자에 대해 징역과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미국처럼 증오범죄방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차별과 혐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일부 개신교인'들과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정치적 ·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종교적 갈등이나 민족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 갈등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는 마음 편한 이 같은 행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社說

세계명상마을, 禪 대중화 시발점

7월 12일 한국불교의 대표 선원인 문경 봉암사 앞에 세계명상마을이 첫 삽을 뜬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명상과 선수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명상과 힐링, 그리고 불교 전통수행을 알릴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다.

세계명상마을은 한번에 30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의 원 다르마센터를 설계한 자연주의 건축가 토마스한라한 교수와 현대종합설계팀이 맡아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는 2021년 조사선 전래 1200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선 대중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승가에서도 위빠사나를 비롯해 서구의 현대화된 수행법을 익히는 추세다. 조계종의 대표수행법인 간화선의 대중화를 부르짖은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작 간화선보다 다른 수행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수좌 스님들은 본인의 수행과는 별개로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오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세계명상마을의 건립은 반갑기만 하다. 불교계는 이번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기계로 물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대화된 선수행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대중에 쉽게 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시대의 흐름인 명상열풍과 접목해 불자가 아니더라도 선문화를 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자리이타는 본인의 수행 외에도 대중들을 함께 이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끔을 의미한다. 세계명상마을이란 하드웨어의 완성을 계기로, 선 수행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승가결사체 활발한 활동 기대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인증서가 7월 4일 수여됐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것이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법 · 호스피스 · 해외구호 · 무료급식 · 환경사업 등을 진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연수인증 단체로 선정 ·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심사를 거쳐 20개 승가결사체가 선정됐으며, 면면을 살펴보면 눈길이 가는 단체들이 많다. 영국 런던에서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로터스 마인드(Lotusmind)'를 비롯해 EM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는 'EM 지구사랑 작은실천', 국제구호활동과 노숙자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는 '다나(다함께 나누는 세상)' 등 매우 이색적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결사체 구성을 독려하고 연수 인증에 지원금까지 수여하는 것은 모두 스님들의 전법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법포교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이라는 조계종 교육원의 캐치프라이즈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은 '탈종교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이 늘어나며 개종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선한 마인드를 가진 스님들이 펼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활동이 전법 · 포교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도 터진 이는 없고, 글 재주꾼과 입 터진 앵무새들만

.....



오래 전 가끔은 쉬고 싶은 마음에 토굴을 찾고자 어느 지역을 가게 되었다.

하루를 보내고 24시 찜질방을 찾고자 택시를 탔는데, 막상 타고 보니 택시 안엔 중년의 보살님 들이 계셔 합승을 하게 되었다. 그 보살님께서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묻길래 "서울이요." 하고 답하니 또 묻기를 "여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 "토굴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그럼 언제 올라가시냐?"고 재차 묻는 것이었다.

"내일 낮에 몇 군데 더 보고 저녁차로 올라갑니다."고 말하자 그 보살님께서는 반색을 하시며 "오늘 저녁에 자기네들 신행단체에 와서 법문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하고 부탁을 했다. 출가자는 부처님 바른 정법을 전하는 법보시(法布施)가 최고라 했거 늘 여기에는 수고비가 없는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한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수락하고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묻자 위치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는 저녁 0시까지 오시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간보다 조금 빨리 그 곳에 도착해서 그 곳 소임자들과 차를 한잔하고는 법문을 하고자 법당으로 갔다. 법당이 꽤 컸다. 스님이 나타나자 다 같이 일어서서 예를 올리려고 하길래 "그냥 앉 아 계시지요." 하니 그 말에 그 곳에 모인 분들이 당황하는 것이었다. 이때 소승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나는 머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머슴이 주인을 섬겨야지 주인이 머슴을 섬기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 앉으시지요." 하니 그래도 삼배의 예를 올려야 된다고 하며 집 전자가 목탁을 치려고 했다. 그때 이 소승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주인과 머슴이 전도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요. 절에 돈과 온갖 음식과 모든 것을 갖다 주면서 그걸 받아먹는 이 거지가 어찌 상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앉으십시오. 앉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납자가 오늘 부처님 법 전하는 최고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 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로 재가 절을 해야 마 땅하거늘 어찌 절을 받겠습니까?" 하고 재차 앉을 것을 권하자 그때서야 다들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오늘 이 법당에 들어와 보니 벽 홍보판에 이미 TV나 홍보 매체에서 유명세를 탔던 큰 스님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간 일자와 함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 소승이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 신행단체는 수 십 년 전에 창립하여 불교대학과 교양대학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우선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당에 많은 큰스님들이 다녀가셨기에 참고로 불교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묻는 것이오니 진실되고, 진솔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답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절 집에 다니면서 사주, 철학, 점을 본 경험이 있는 분 손드세요. (손을 드는 이 아무도 없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삼재기도, 삼재풀이 등..... 그에 따른 액막이 용 부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험이 있는 분 손 드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손을 드는 이 없음)

세 번째, 여러분 불자 맞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답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신비한 바위, 바위 속 개구리, 우담바라 등이 피었다고 해서 그러한 곳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고개 숙인 상태로 웃음이 간간이 나옴)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 중에 손든 이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고기 방생이나 부처님 찾는다고 밖으로 성지순례를 한 번이 라도 갔다 오신 분은 있습니까? (역시 손을 드는 이 없음) **그럼 반대로 고기 방생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인간 방생이 최우선이라 불우 이웃 돕기에 보시 하신 분 있습니까?**

바깥으로 성지순례하려면 최소 몇 백만원씩 하는데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불우 이웃이나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 리고자 직접 보시 하신 분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이 없음)

또 가족 중에 먼저 간 이가 있어 49재나 천도재를 지낼 비용으로 사회복지 재단이나 장애인 단체, 불우 이웃 돕기에 망자의 이름으로 기탁하신 분 있습니까? (역시 손을 드는 이 아무도 없음)

다섯 번째, 입시기도, 승진기도, 사업번창, 대운기도 등등에 한 번이라도 동참했던 분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인등, 합격의 등, 승진의 등 등등을 현재 밝혀 놓았거나 한번이라도 하신 분 있습니까?

일곱 번째, 만년위패, 평생위패를 모셨거나 천도재를 밥 먹듯이 자주 하신 분 있습니까?

여덟 번째, 절 짓는데 불사랍시고 거액을 시주한 사람 있습니까?

반대로 부처님의 정법이 사라지지 않게 학부에 있는 학인스님 뒷바라지를 했거나 학비를 대주는 등 교육 불사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쯤 되자 장내가 숙연함을 느낄 정도로 조용해졌다.)

전부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법문을 듣고자 왔습니까? 저 홍보판을 보면 많은 큰 스님들이 이 법당을 왔다 갔는데 무슨 법 문을 듣기를 원합니까? 미안하지만 이 소승의 질문 속에 부처님 말씀 이 다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불자 맞습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해 주기를 바랍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등도 크기별로 돈을 받으며, 안에 달면 최소한 50만원 이상, 밖에 달면 10만원, 이것도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이 무섭지도 아니한지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 생에 부처님 제자 내지는 몇 대 손이라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부처님 경(經)과 조사어록에서 정법이 사라진 말세의 한 가운데 와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마왕 파순이 대열반경에서 말하길 부처님 열반 직전에 마왕파순이 나타나서 한 말을 우리는 모두 잊고 있습니까? 마왕 왈 "당신이 가고 나면 나는 내 부하들을 당신의 제자로 위장시 켜가사와 장삼을 입히어 당신이 이룩해 놓은 법당에서 정법과 모든 것 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냉정하게 보자. 방송국 및 언론 매체들을 나무라지 말고 각 사찰마다 정법 불교를 한다고 떠들면서 하는 행위는 이것이 정법 불교인지..... 아이가 웃을 일이다. 정법 수행도 안 하면서 하루 해 지는 줄 모르고 천도재와 몇 십억 짜리 미타 국토 인가증을 파는 잡귀 행사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그들만의 일인가? 스스로 불교를 파괴하고 있으니 법력이 없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말로는 엄청난 수행을 통하여 신통 방통을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는 짓이란 하룻날 내내 장삿꾼 행상이다.

또 이쯤 시기에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입시기도 한다고 아우성이다. 입시 발원문에 내 아들, 딸들 사진까지 붙여서 부처님 턱 밑에 들이밀 고 있다.

잘 봐 달라고..... 이것이 인류 전체를 위하는 것인가? 지금 절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불교의 본질인 자비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기도랍시고 하고 있고, 사찰이 신도를 상대로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불교는 무당보다 못한 하급 종교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수능기도, 입시기도, 권선문은 기본이고 사찰 입구 제일 잘 보이는 곳 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절에서는 글을 모르는 눈 먼 이들만 있는 것인지?..... 이러하니 21세기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즉에 부끄러운 줄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말로서 도통한 것처럼 떠들지 말고, 입은 굳게 다물고 그 능력(법력)을 보여라! 바르게 수행하면 언젠가는 불, 조사님들의 권능이 생긴다.

삼매 중에 사후세계 중에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경지에 까지 간 이가 있다면 비불교적인 행위 (사주, 철학, 관상, 부적, 인등, 삼재 풀이, 삼재기도, 수능기도, 고기 방생, 성지순례 등등.....)는 무서워서 절대 하지 않는다. 다만 화엄에 등장하는 철저한 보현행자가 될 것이다.

지옥세계는 업의 정도에 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 조사님들은 모든 경(經)과 어록에서 체험을 해서 체득한 것만을 얘기하라고 하셨다.

지난 안거가 끝나고 안거에 동참했던 이들이 0 0 큰스님 친견을 원 하길래 나들이를 했었다. 약 2시간 가량 큰스님 처소에서 법담을 나누며 큰스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80이 다 되도록 법을 설하러 전국을 다녔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체험, 증험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자, 이쯤에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조현병 환자나 초기 암, 암 1, 2기 말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은 회생 불가능한 시한부의 생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에 출가인이라면 분명 해답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세존이나 예수께서 길에서 그러한 환우를 만나면 외면했을까? 길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TV나 언론매체에서 특히 인간극장 등..... 에서 시한부 환우가 살아가는 모습과 조현병 환자가 고통 받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때마다 이 소승이 있는 절은 신도들이 연락이 온다. TV를 잘 보시라고.....

그 곳에서 방송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신도님들께 전화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책임지고 알아내서 연락을 하라고 한 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기 신도님들과 같이 환우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다.

방송국은 사생활 문제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다. TV 화면에 나오는 배경을 바탕으로 대충 찾아서 그 인근에 가서 묻고 물어서 찾아내 어그 집을 찾아 노크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종교적인 문제로 부닥친다. 다행히 불자이면 마음이 편한데 대부분 환우들이 젊을수록 기독교, 천주교인들이다 보니 첫마디가 기도를 거부하겠다고 나온다. 그래서 미리 신도 일행 분들한테 절대 불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해 놓고 대신 성경 얘기를 하면서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소승도 학부시절에 0 0 목사님으로부터 비교종교학을 2년 정도 공부 한 적이 있다.)

다행인 것은 신도중에 전도사 생활(서울서 기독교내 어린이 성경교사 도 더불어 했음)을 오래 하셨던 분이 계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득해서 기도를 받는 확률은 60% 정도 이고, 스님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처음이라고들 한다. 반대로 신부나 목사님은 수없이 많이 다녀갔다고 한다. 불자인 환우도 스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거라고 하며 역시 신부, 목사는 수없이 왔다 갔다고 한다.

이 소승은 환우 기도시 신도님들과 같이 다 보는데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신도들이 다 증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것이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 오랜 투병 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오지에서 요양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곳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 기도를 해주고자 했으나, 그가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 하길래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

지금 절 집에 환우나 조현병 환자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천도재 내지 구병시식만을 하라고 권하고, 그것도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수 없이 많이 하게 한다. 그것이 수행 끝에 법력 있는 자가 할 일인가? TV에서 보면 TV에 출연하거나 크고 작은 사찰 신도들 얘기는 무조건 자기 스님네가 신통, 방통하다고 선전을 하고, 그럼 직접 보았냐고 묻고, 또 물어보면 역시 소문이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방송사 기자들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망신이라도 이런 망신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행 끝에 얻은 불가사의한 신통을 보여라. 왜 숨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망신을 당하나? 몇 년 전에 JTBC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십대 점술가를 찾아서" 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다. 전국 유명하다는 무당, 사주쟁이, 스님 할 것 없이 많이 출연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여기 대중들이 하나 같이 스님이 출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놈들아, 내가 거기 나가면 나를 사주쟁이 정도로 취급할 것 아니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 (참고로 본 사찰은 일체 사주, 철학, 점, 관상, 부적, 삼재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불, 조사님은 수행 중에 뭐가 보이거나 사람만 보면 알 수 있 는 그런 경계가 오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의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물며 사주, 철학이라니? 그러한 경계를 뛰어 넘어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불경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신통이 오는 것이다.

그럴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금전을 취하거나, 그 신통으로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 그대로 중생제도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그 능력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법화경에도 일부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 "십대 점술가를 찾아서"라는 방송이 끝나고 신도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현대불교 신문에 어느 방송이던지 제안한다고 하며 그 프로와 상반되게 "십대 성직자를 찾아서"라는 프로를 기획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어느 방송이든 답이 없었다.

어느 종교든 구분하지 말고 전 종교인이 모여서 참수행자답게 과연 가피와 기적이 있는 것인가? 앵무새처럼 말로 하지 말고 실제 보일 수 있게 멍석을 깔아보자.

조건은 정신적 환자 (조현병)와 초기 암, 암 1기, 2기 말고, 말기암 (시한부) 환자, 희귀병 환자를 시술하는 수행 능력 (법력)을 보여주는 참 수행자 대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부탁은 TV에서 입으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들을 신통, 방통한 이로 보고 꼭 출연 시킬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문이 무성한 크고, 작은 그림자들도 다 출연시켜야 할 것이다.

이 사바세계를 마왕 파순의 제자들이 득실거리는 폼새를 두고 볼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방송에 제안한다.

(소승이 있는 본 절은 신도회를 만들지 않는다.)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1) 010-4807-6032 (박보살님)
2) 010-2526-4365 (김보살님)
3) 010-9707-4808 (박보살님)
4) 010-6786-7495 (윤보살님)
5) 010-3143-5302 (선현)
6) 010-9411-5302 (법혜)

불. 법. 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더불어 사는 삶’ 실천하는 희망불자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에 옮기며 부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다.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프리마켓’ 자원봉사자들이다. 왼쪽부터 백영애 대표, 유신자, 장선교, 김남희, 강문자 회원.

道伴의 향기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프리마켓 자원봉사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더불어 사는 삶, 이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말씀 역시 그것을 위한 가르침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이 시대의 어려움일 것이다. 결국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서로를 살피는 것이고, 살피다보면 서로를 돕게 되고, 종국엔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런 삶이 늘어나는 만큼 세상은 정토에 가까워지리라.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에 옮기며 부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다.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프리마켓(이하, 희망씨앗)’ 자원봉사자들이다. 평범한 주부, 피아노 학원 원장, 교사였던 그들은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다. 울산 서장사에서 법향 가득한 도반들을 만났다.

봉사에 눈 뜨다… ‘희망씨앗’

‘희망씨앗’ 불사는 현재 희망씨앗을 이끌고 있는 범국 스님(울산 서장사 주지)이 인도 내 티베트 난민들을 걱정하면서 시작됐다.

범국 스님은 2012~2014년까지 인도 다람살라 사라대학에서 공부했다. 그 때, 인도에는 티베트 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대부분 힘겨웠다. 범국 스님은 그들의 삶을 곁에서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미래가 불투명했다. 범국 스님은 그들을 돕고 싶었다. 당시 범국 스님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었다. 인연은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다가오는 것일까. 범국 스님이 고민 속에 있을 때 우연히 스님은 한국에서 의류를 기증받게 됐다. 티베트 난민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스님은 기증 받은 옷들을 그들에게 보시했다. 스님은 한국에서 온 옷을 입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원했다. 단순히 그들에게 일상에서 입을 헌 옷을 보시하는 게 아니라 생계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판매용 의류를 보내주는 것이었다. 희망씨앗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014년 한국으로 돌아온 범국 스님은 경주에 ‘큰마음 절’을 열고 포교와 원력의 실천을 시작했다. 스님은 인도에서 겪었던 일을 대중에게 들려주며 마음에 품고 있었던 ‘희망씨앗’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스님의 설법에 대중은 하나 둘, 마음을 내기 시작했다.

“경주 성건동에 문을 연 큰마음 절에서 범국 스님이 희망씨앗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스님은 법인인가 서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도장도 받으셨죠. 그 때 저도 도장을 찍고 불사에 동참했어요.”

희망씨앗 자원봉사자 중 맏언니인 강문자(환희심 · 67) 회원이다. 창립 이후 자리를 세 번이나 옮기면서도 변함없이 스님과 함께 희망씨앗의 자리를 지켜온 강 씨다. 그녀는 처음엔 스님의 권유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봉사는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알아가는 신행과 수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도반들과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 그녀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범국 스님은 매일 아침 SNS를 통해 인연이 있는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과 함께 희망씨앗에 대해 전했고, 전국의 불자들은 헌옷과 중고용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휑한 공간에 헌옷이 들어찼고 정리하기 바빴어요. 청소를 시작했고 필요한 집기류도 설치해야 했어요. 도반들은 청소를 도왔고 헌옷을 분리 정리해 판매를 시작했지요.”

절 한 편에 마련된 프리마켓에선 인도로 보낼 옷들을 모으고, 배송비 마련을 위한 판매도 진행했다. 당시 교사로 근무했던 강 씨는 일을 마치면 어김없이 회원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들고 바로 희망씨앗 프리마켓으로 달려갔다. 강 씨는 주부인 회원들이 도시락을 싸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도 강 씨는 남아서 매일 3시간 씩 나머지 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강 씨는 도반들과 동고동락했다.

“초창기라 일도 많았을 때였는데, 모두들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이들의 손길이 거쳐 갔어요. 그동안 함께 봉사해 준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희망씨앗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젠 초창기 멤버는 지금 저와 김남희 씨가 남았어요. 진심으로 함께 해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강 씨 건너편에서 김남희(명심화 · 47) 씨가 밝게 웃고 있다. 현재 그녀는 채식 요리를 배우기 위해 대만에서 유학 중이다. 가족들과 떨어져 1년 간 공부를 하고 잠시 한국에 들렀다. 다행히 대만에서 진행하는 불교 캠프가 늦춰져 출국일이 지연됐고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김 씨가 늦은 나이에 대만 유학까지 하게 된 것은 희망씨앗 때문이다. 희망씨앗이 마을기업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채식 도시락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처음 불교 기초교리를 가르쳐준다는 현수막을 보고 큰마음 절을 찾았다. 그 후 봉사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평범한 주부로 1남 1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 씨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지난날을 돌이켜 본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 씨는 봉사를 통해 개인을 위한 삶이 대중을 위한 삶으로 바뀌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넓어진 자신을 경험했다.

B2면에 계속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티베트 난민 돕기 위해 창립

헌 옷 보내 창업 일자리 창출

범국 스님 SNS로 희망씨앗 알려

배송비 마련 프리마켓 개장

국내 취약계층 지원금 후원

티베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상생공동체협동조합으로 도약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정중선 및 보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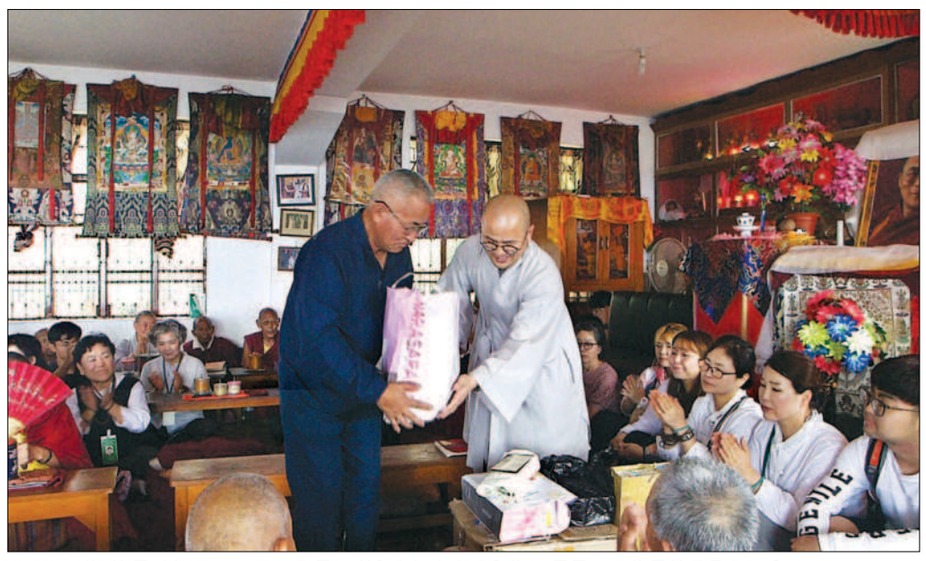
B5
문화
전국 연꽃 축제 개막

B6
학술 · 문화재
‘부석사 관음상’ 해법 주제 국회 토론회

“진정한 봉사는 힘들 때도 하는 것”



인도 다람살라에 거주하는 티베트 난민들이 ‘희망씨앗’에서 보낸 의류로 장터를 열고 있다.



2017년 9월, 범국 스님이 티베트 난민들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프리마켓 자원봉사자’

B1면에서 계속

희망씨앗 자원봉사 도반들

봉사가 삶의 우선순위로
“봉사는 남 아닌 자신 돕는 일”
도시락 챙기며 도반들 독려
“넉넉한 도반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마음 배워요”
프리마켓은 ‘보시바라밀’ 장터
채식도시락 사업 위해 대만 유학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쓴 만큼 제 자신도 특별해지고 커집니다. 20대는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간을 보냈고 30대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했어요. 40대 중반에 들어서 부처님 법을 만난 후 제가 죽을 때를 생각해봤죠. 그 때 자신 있게 후회 없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헌옷이 도착하면 정리해 포장하는 일을 담당했다. 처음엔 해운 콘테이너 박스로 크게 담아 다람살라로 보내려 했으나 인도세관에서 판매 수익사업으로 의심해 무산됐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 박스로 다시 일일이 포장을 해야 했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해운운송은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했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다.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선 포장을 단단히 해야 했고 비닐로 두세 번 재포장을 해야 했다. 그리고 비싼 운송비가 또 다른 문제였다. 우체국 박스는 20kg 이상 담을 수도 없었고 해외 배송을 하려면 5박스에 1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모아서 정리 한 옷이 20박스가 넘을 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 희망씨앗은 프리마켓을 통해 직접 옷을 판매하는 것으로 배송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난민 학생을 위한 장학금, 국내 취약 계층을 위한 후원까지 나섰다. 희망씨앗은 매년 장학금 800만원, 취약계층 후원 지원금 600만원, 티벳 난민들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에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힘든 일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김 씨는 봉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김 씨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김 씨로서는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

“수익금의 사용처를 알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원력의 깊은 뜻과 의미를 알기에 그만 둘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제 삶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만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처음엔 남편이 ‘설마 가겠어?’란 의구심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저를 응원하는 든든한 우군으로, 학비까지 보태주고 있습니다.”

희망씨앗, 행복나무로 발돋움

2017년 8월 경주 큰마음 절은 울산으로 자리를 옮기고 길상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길상사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희망씨앗 프리마켓은 더욱 활기를 띄었다. 강문자, 김남희 회원은 기차를 타고 울산까지 다니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도반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울산 지역의 도반들이 힘을 보탰다. 그들 역시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실천을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에 가까웠는지 알게 되었고, 하루하루 이타행을 쌓으며 ‘함께’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됐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시의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울산에서 새롭게 합류한 백영애(정진화 · 48) 회원이다. 그는 쉽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봉사를 위해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은 봉사를 할 때가 아니다’ 고 했지요. 그 때 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봉사는 편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백씨에겐 봉사가 곧 기도가 됐다. 현재 그녀는 희망씨앗 대표를 맡고 있다. 그녀는 “자신은 대표직을 맡을 그릇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도반들이 있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며 웃었다. 백씨는 함께 봉사하는 도반들의 넉넉한 마음씨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힘든 상황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도반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됐다. 백 씨가 겪고 있던 힘든 상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봉사’와 그 일을 함께 한 도반들의 향기가 백 씨의 삶에 관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백 씨가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유신자(53) 회원과 장선교(선연지 · 50) 회원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고마운 도반들입니다.”고 했다.

장 씨는 커피봉사를 담당한다. 봉사이기에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자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장씨는 “봉사이니까 더욱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프리마켓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차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봉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천 원 이천 원 하는, 저렴한 물건을 사면서도 굳이 값을 깎아 달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 순간 세상의 경제관에 맞춰진 제 마음이 습관처럼 나오면서 언짢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 여기 희망씨앗 프리마켓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란 걸 깨달았어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씨앗이 되는 것, 희망씨앗 프리마켓의 또 다른 존재 이유입니다.”

상생공동체협동조합으로 성장

길상사는 올해 5월 울산 북구 천곡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서장사로 이름을 바꿨다. 길상사로 이전 한 지 일 년 만에 이룬 중창 불사이다.

희망씨앗은 서장사 바로 옆에 상생공동체협동조합으로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다. 채식 도시락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티베트 난민들이 제작한 불교용품 판매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및 비닐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불사를 위해 희망씨앗 봉사자 도반들이 새롭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희망씨앗 프리마켓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이 보낸 문자에는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혹시라도 그들의 노력이 글에서 빠질까 걱정이 앞서 서둘러 보낸 흔적이 역력했다. 매실과 파인애플 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시금 조성에 동참한 공양주, 가족봉사단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봉사하기 위해 찾아오는 류현희 불자, 배달을 맡은 현월 법사 등 모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법명과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다는 당부도 거듭 반복했다. 전국에 이름 없이 헌옷 보내기에 동참한 불자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동참자들이 그들에겐 ‘희망씨앗’ 이었다. 행복나무로 자라 부처님의 숲을 이룰 씨앗들인 것이다.



‘희망씨앗’을 설립한 범국 스님(사진 왼쪽)이 2017년 8월 울산 길상사에서 티베트 스님과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佛法은 유·불·선 초월”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⑫ 정중선 및 보당선

중국선종은 8~9세기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과 전파를 하면서 흥기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종과 북종의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사천성 일대에서 정중(淨衆), 보당(保唐) 및 우두종 등 기타 유파가 출현하였다. 보당선(保唐禪)은 우두선이 한창 성행하고 있을 때 지금의 사천성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던 오조홍인의 문하 가운데 한 지류를 말한다. 보당선의 시조는 자주 덕순사 지선(資州 德純寺 智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창시자는 성도 보당사 무주(成都 保唐寺 無住)라고 한다. 무주(無住)의 스승이 바로 신라인으로 유명한 정중사(淨衆寺) 무상(無相 · 684~762)이다. 그러나 정중선의 창시자는 무상선사이고, 보당선의 창시자는 무주선사이다. 다만 보당선과 정중선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정중보당계라고 칭하기도 한다.

먼저 간략하게 정중선을 살펴보면, 정중선은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등 삼구로서 종(宗)을 삼았고, 보당선은 무망(無妄)으로서 종을 삼아서(以無妄爲宗),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망(妄)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즉은 곧 진(眞)이다. 그러나 무심(無心)을 귀하게 여기서 묘극(妙極)으로 삼는다고 하고 있다. 또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무상선사는 일찍이 본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를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이라고 하면서, ‘무억시계(無憶是戒), 무념시정(無念是定), 막망시혜(莫忘是慧)’라고 계 · 정 · 혜에 대비시켜서 이 삼구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삼구에 대해서 종밀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釋義)〉에서 자세하게 해석을 하였는데, “삼구라는 것은 무억, 무념, 막망이다. 뜻으로 하여금 이미 지난 경계는 추억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미리 예측으로 번영과 성패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항상 이 지(智)와 더불어 상응해서, 산란하거나 혼란하지 않는 것이 막망(莫忘)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삼구의 선법에서 중점은 바로 무념(無念)과 무억 無憶)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무주선사(無住禪師)도 “불억(不憶), 불념(不念)은 일체법을 회의(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불법도 또한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세간도 또한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중선의 관점으로 볼 때 보당선의 선법과는 거의 유사 내지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

보당선의 실질적인 창시자는 무주선사(無住禪師 · 714~774)라고 한다. 왜냐하면 보당선의 사상적 특징이 모두 무주선사의 선법사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무주선사는 선학의 기본입장을 ‘무념(無念)’에 입각해서 설립했다고 한다. 그는 〈역대법보기〉에서 이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염을 일으키지 않으면 계문이 되고, 염을 일으키지 않으면 정문이 되고, 염을 일으키지 않으면 혜문이다. 무념은 곧 계 · 정 · 혜를 구족하는 것이다.(念不起戒門. 念不起是定門. 念不起惠門. 無念卽戒定惠具足)”고 하였다. 즉 무념의 반대로 념(念)은 일체법을 일으키는 근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래 이 ‘무념위종(無念爲宗)’이라는 사상적 개념은 혜능과 그의 제자 및 신회의 주장으로, 무주선사의 ‘무념’설도 당연하게 이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무주선사는 ‘무념’은 곧 ‘진여문’이며, 이 ‘진여문’은 일체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해탈의 이명(異名)이 된다고 보았다. 또 그는 본체론의 입장에서 보면 ‘무념’은 곧 실상이며, 해탈론의 입장에서 보면 ‘무념’은 곧 열반이 되며, 인식론에서 보면 ‘무념’은 곧 무분별지가 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무주선사는 당연히 혜능의 사상 및 하택신회의 사상을 흡수하고 운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는 또 성불과 견성, 무념의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는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에서 ‘중생본성, 견성즉성불도(衆生本性, 見性卽成佛道)’ 즉 “중생의 본성인 성품을 보면 곧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무념’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곧 중생의 본성이 자연히 드러나고 되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점은 그의 스승인 무상선사의 관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무상선사도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에서 ‘무념’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즉 “염이 있으면 중생이다. 무념도 가설이다. 유념(有念)이 만약에 없다면, 무념도 스스로 없으며, 삼계심이 멸하고, 적지(寂地)에 거하지 않고, 사상(事相)에 주하지 않는다. 용공(功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허망을 여의었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부른다(爲衆生有念. 假說無念. 有念若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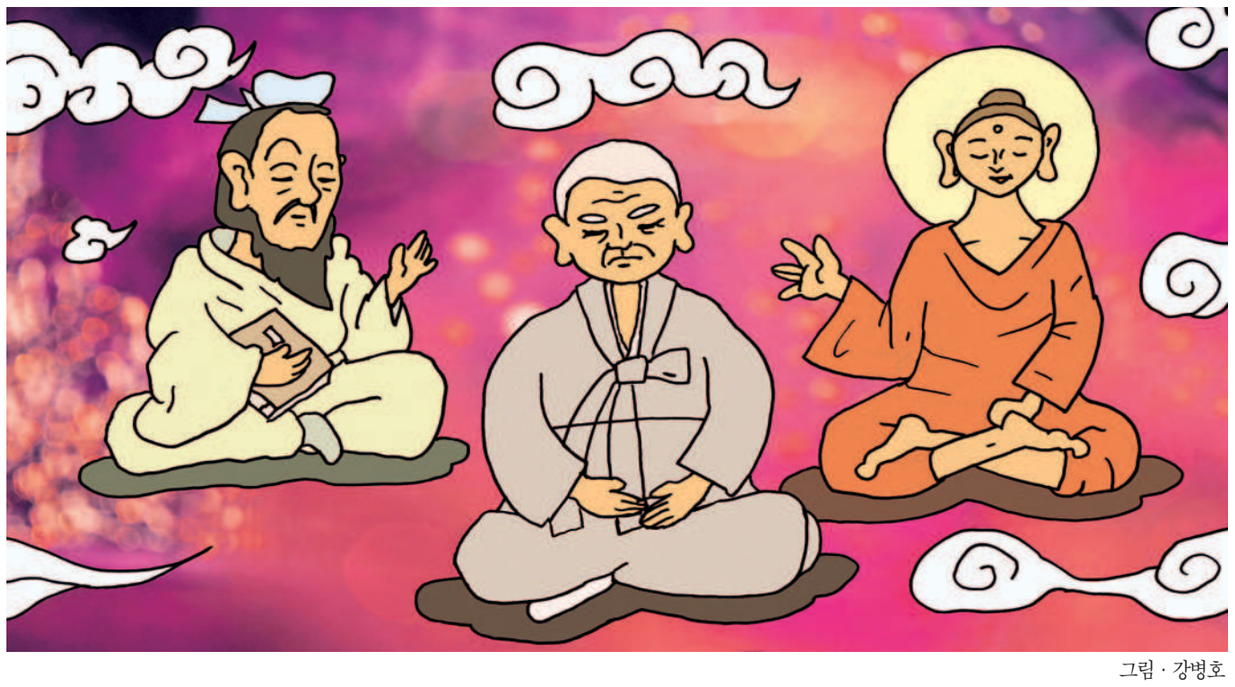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정중 · 보당 · 우두종 등 출현
정중선은 무억 · 무념 · 막망
보당선은 ‘무망’을 종으로

無念不自. 滅三界心. 不居寂地. 不住事相. 不無功用. 但離虛妄. 名爲解脫)”고 했다. 비록 보당선이 법통상으로 볼 때 남종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이론상으로도 조계혜능의 사상과 하택신회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당선이 그리 간단하게 남종선의 영향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보당선도 당시에 유행했던 기타의 선종의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만의 독특하면서도 고유하고 독립적적인 사상적 체계 및 수행체계의 원칙이 존재한다.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에 보면 보당선에 관한 선법 및 수행에 관련된 방식과 도가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 할 수가 있다. 크게 노장의 ‘무위(無爲)’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무주선사는 일찍이 유 · 불 · 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선리(禪理)를 발휘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는 노자의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를 곧 중생의 본성으로 이해했고, ‘비상도(非常道)’는 말로는 이르지 못한다고(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는 것)했다. 또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도 또한 중생의 본성이 되며, 그러나 언설은 있을지언정 모두 실질적인 ‘의의(意義)’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명자(名字)는 법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비상명(非常名)’이 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에 어떤 학인이 오직 생사의 노역을 싫어하면 이것은 이익이 없다. 도에도 손해가 된다... 무위에 이르면, 곧 무위가 유위가 되며, 도에 즉한 본성이 된다.(若有學人. 惟憎塵勞生死. 此是不益也. 爲道曰損..., 至於無爲. 無爲無不爲. 道卽本性)”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도에 이르면 말이 끊어지고, 망념이 불생한다. 곧 이것은 이익이 된다. 심왕을 관할 때 일체를 모두 다 버리고 여의면 이것도 이익이 있으며, 이로써 무위에 이른다.(至道絶言. 妄念不生. 卽是益之. 觀見心王時. 一切皆捨離. 卽是有益之. 以至於無爲)”고도 했다. 그는 “‘무위’는 곧 ‘성공적멸(性空寂滅)’이며, ‘무부위(無不爲 · 有爲(하는 것이 있다)’이는 곧 ‘무위’에 주하지 않고, 무기의 수행을 하며, 무기를 쓰지 않는 것으로 증을 삼는다. 공을 쓰지 않고 증을 삼는다. 곧 이것은 무부위(無不爲)의 뜻이다.(不住無爲. 修行無起. 不以無起爲證. 修行於空. 不以空爲證. 卽是無不爲義也.)”고 하기도 했다. 즉 노장학의 특유의 은유법 내지 반어법으로 진리를 구사하거나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 점은 약간의 중국인들의 독특한 화법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무튼 무주선사는 해탈의 관건을 도가의 ‘무위(無爲)’의 개념을 빌려서 해석을 하고 있다.

결국에 그는 해탈의 의미상정을 불교의 ‘무념(無念)’과 도교의 ‘무위(無爲)’와 연관 지어서 그의 해탈관을 말하고 있다. 그는 세간은 본래 하나의 실상(實相)이며, 천하도 본래가 동정(動靜)도 없는 무사태평(無事太平)한 상태, 즉 본래 청정무구한 상태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번뇌를 조작하고, 그 스스로 조작한 번뇌에 집착해서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위(無爲)로서 수행의 원칙을 삼고, 임운자연(任運自然) 및 순기자연(順其自然)하면 자연히 환지본처(還至本處), 즉 반본귀진(返本歸眞 · 본을 돌이켜서 진에 돌아간다)할 수 있으며, 그러나 비록 무소득(無所得 · 얻는 것이 없지만)이지만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무위(無爲)’로서 성공적멸(性空寂滅)의 경계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 하는 것이 없지만 하는 것)의 상태의 경지가 된다는 것이다. 무주선사는 곧 불교의 ‘무념(無念)’을 강령으로 삼으면서 도가의 ‘무위(無爲)’를 관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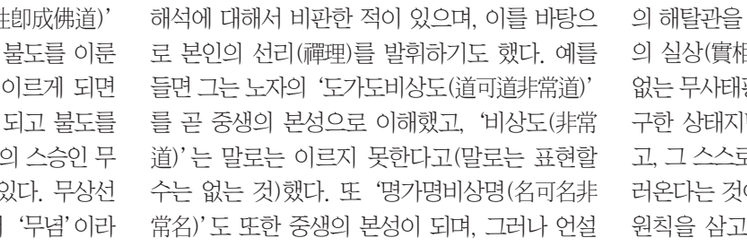
물론 무주선사가 도가의 개념과 사상만을 인용한 것은 아니고, 유교사상을 흡수해서 사용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보당선의 사상적 체계 및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했다. 한편 그가 위의 내용과 같이 유 · 불 · 도를 사용해서 서로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지만, 유 · 불 · 도 삼가(三家)의 사상을 혼용해서 사용했거나 혹은 인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는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에서 “장자, 노자는 모두 무위무상(無爲無相)을 설하고, 하나를 설하고, 깨끗함을 설하고, 자연을 설한다(說一. 說淨. 說自然).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 같지 않다. 이러한 인연, 자연은 모두 희론이 될 뿐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일체현성들은 다 무위법(無爲法)으로써 차별법을 쓴다. 그래서 부처님은 곧 무위에 주하지 않고, 무상에 주하지 않으면서, (無相)에 주한다.(佛卽不住無爲. 不住無相. 以住於無相)”고 하였다. 다시 불교와 유교의 차이점을 강조해서 말하기를 “이승인(二乘人)은 삼매(三昧)술에 취해 있고, 범부인은 무명의 술에 취해 있고, 성문인(聲聞人)은 진지(盡智 · 灰身滅智 · 신심의 번뇌를 완전하게 단멸한 상태, 즉 소승 아라한과의 경계)에 취해 있고, 연각인(緣覺人)은 적정지(寂淨智)에 취해 있고, 여래지혜의 생기(生起)는 무궁무진하다. 장자 노자의 설은 성문 등의 설과 같다. 부처님이 성문인(聲聞人)을 꾸짖기를 맹인과 같고 농아와 같다고 했다. 예류일래 불환아라한(預流一來果不還阿羅漢)등 모든 성인의 그 심(心)은 다 미혹(迷惑)하다. (때문에)부처님은 중수(衆數)[1]에 떨어지지 않는다. 일체를 초과했기 때문에 법의 구정(垢淨)도 없고, 법의 형상(形相)도 없고, 법의 동란(動亂)도, 법의 처소(處所) 및 법의 취사(取捨)도 없다. 이로써 공자, 노자, 장자를 초월하는 것이다. 불법은 항상 세간에 있으나, 세간법에 물들지도 않고, 세간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고로 예경을 관하는 바가 없다(공자는 신분의 차등에 근거한 예법내지 처세법을 말했다). 공자가 설한 많은 것에는 집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는 유 · 불 · 도를 회통하고 인용하였지만, 불교와 혼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교와 도교, 유교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현대에 비추어 보면 요즈음은 불교의 정확성을 모르면서도 현대의 기타 학문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쯤 반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성실론〉에 보면 부파불교시대에 논쟁의 쟁점가운데 하나인 부처님도 승려의 숫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을 말하는 것 같다.

〈동국대 강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 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 물
유튜브 : 회향선원 내원궁을 검색하세요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마음 가는 대로 읽는 365구절 명구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명구 365(전 2권)

글 무비 스님/그림 양태숙/불광 펴냄
5만원(세트)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흔히 '팔만 사천 법문'이라 불리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배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모두 읽으려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다 알려면 길고긴 시간이 필요하다.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전 2권)〉는 방대한 불교 문헌 가운데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365구절의 명구를 하루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록된 구절들은 〈금강경〉이나 〈화엄경〉 같은 유명한 경전부터, 〈금강경오가해〉 같은 경전 해설서, 〈임제록〉이나 〈육조단경〉 같은 선어록 등 다양한 문헌에서 가려 뽑았다. 여기에 무비 스님이 출처가 되는 문헌에 대한 설명과 구절에 담긴 뜻, 유래 등의 해설을 덧붙여 혹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라도 그 뜻을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은 그동안 절판돼 전자책 혹은 중고 책으로 접해 볼 수밖에 없던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시리즈'의 글 가운데 365가지를 뽑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하나 날짜를 붙여 하루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또한 검은 먹으로 표현한 그림을 수록하였던 이전의 시리즈와는 달리, 만물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47여 컷을 컬러로 실어 잠시나마 눈과 마음을 쉬어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책속 명구를 한 구절씩 읽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어느새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삶을 꾸려 나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나 다름없다. 그래서 하루에 명구 하나씩 읽으며 어지러운 마음을 비춰보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독자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이 가진 강점은 무비 스님이 경전과 선어록을 공부하며 명구라고 여겨지는 것은 옮겨 적어 외우며, 오래도록 곱씹은 내용을 드러낸 결과물이기에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명구 100선 시리즈 중 365개 선별
저자, 출가 계기 통해 각 명구 모아
감각적 표현 그림 47여 컷 실어

무비 스님이 명구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출가하게 된 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스님이 출가를 결심한 것은 〈자경문〉의 "삼일수심천재보(三日修心千載寶) 백년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이란 구절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이웃 사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또래의 동자 스님이 이 구절을 읊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감동해 자신도 이런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출가할 마음을 낸 것이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스님은 출가 후 경전과 해설서, 선어록을 공부하다가 명구라 여겨진 것은 옮겨 적어 외우고 버리고, 하는 일을 수십 년간 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또 다시 선별해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에 수록된 명구들이다.

이 가운데에는 불법을 담은 구절들도 많지만, 불교를 알든 모르든, 가슴을 찡하게 울릴 만한 구절들도 많다. 효심이 지극한 진묵 일옥 스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쓴 제문, 그리고 어느 노스님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출가자의 처지를 돌아보며 병든 스님을 돌보라는 부탁을 담아 영암산 석벽에 새긴 글 등이 그 예이다. 이런 구절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읽고 느끼는 것이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팁일 것 같다.

의식의 발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초인공지능과의 대화

지승도 지음/자유문고 펴냄/1만 7천원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넘어선 존재가 연구, 준비중이다. 소위 초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존재다. 4차산업혁명의 정점은 바로 이 초지능에 있다. 4차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등 소위 3초(超)이지만, 실제로는 초지능 하나에 다 포섭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초지능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의식의 발현에 초점을 맞춘다. 각종 인공지능 이론들을 중심축으로 뇌과학, 인지과학, 복잡계과학, 심리학, 양자역학 등 관련 이론과 개념들을 융합하며 인공지능과 의식과의 접점을 모색한다. 의식의 발현은 이들이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도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자아와 주체성을 갖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이다. 그것도 여러 측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식의 발현은 가능할 것일까? 가능하다면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의식을 가진 인공 존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인간처럼 자아에 대한 기쁨과 슬픔, 나아가 사랑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한 존재가 겪게 될 의식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새로운 존재의 탄생으로 인간이 겪게 될 혼란은 무엇일까? 인간과 이들이 겪게 될 갈등은 무엇이고, 과연 양자는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을까 등등. 이 책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담아낸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대화 형식의 구성에 있다. 초인공지능(의식이 발현된 인공 존재)과 인간이 마주앉아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제에 비해 읽어나가는 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마치 내가 대화의 한 당사자가 되어 인공존재와 교감하고 있는 듯 느껴질 것이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자유로운 상상력이다. 저자는 다양한 첨단 인공지능 이론을 동원하지만, 굳이 학문적으로 정밀한 체계를 잡고 이에 따른 과학적 증명이나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상과학 소설에 가까울 정도로 쉽고 편하게 여러 주제를 넘나든다. 한편, 이 책은 초인공지능의 문제, 미래과학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존재의 문제에까지 성찰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지관(止觀) 등 선의 수지법문 요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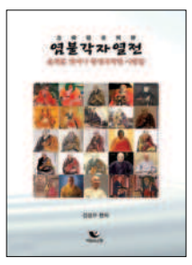


안반수의경

석법성 역주
안세고 한역
운주사 펴냄
1만 4800원

이 책은 불교 수행법의 근본이 되는 지관수행의 한 방법인 호흡법을 담은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 두 경은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으로 원문의 직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역자의 적절한 의역과 보완설명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또 다른 경전인 〈도지경(道地經)〉은 〈안반수의경〉과 마찬가지로 지관(止觀) 등 선의 수지법문(修持法門)에 대한 간략한 요지로서, 유가 관행의 대요(大要)를 7장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반수의에 의한 지관쌍수의 실수법(實修法)"이란 이름으로 역자의 자세한 해설이 부록으로 추가돼 있다. 이 책은 선수행을 행하는 이라면 누구든 기본적으로 꼭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인 〈불설대안반수의경〉과 〈도지경〉을 원문번역, 역주, 해설과 함께 자세히 풀어 놓아 선정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 · 대덕의 일화와 염불 구도행 소개



염불각자열전

김성우 지음
비움과 소통 펴냄
1만 3800원

부처님께서는 염불이 범부중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파악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대안으로 미리 설해놓았으니, 그 대기 법문이 바로 불력수행이다. 이른바 이행도에 해당하는 정토종 또는 정종, 연종으로 불리는 염불수행문이 바로 그것이다. 염불은 부처님의 한평생 교화의 정화이자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중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불의 최고 장점은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일단 극락에 왕생하면 다시는 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염불은 '성불로 가는 최고의 방편'이라 할만하다. 탐진치 삼독을 전혀 없애지 못해도, 또 일심불란이나 염불삼매에 들지 못해도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또 오역죄를 지은 극악한 죄인도 임종 시 한 번, 또는 십념의 염불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니 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원력 덕분이다.

불교는 어떻게 '탄생' 했는가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후나야마 도루 지음
이향철 옮김
푸른역사 펴냄
2만 5천원

이 책은 불교 경전의 한역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책으로, 불전 번역의 역사를 다룬 개설서이다. 번역자와 번역론, 과정과 방법, 위경(僞經)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불전 한역의 역사를 구역(舊譯)과 신역(新譯)으로 나누는 등 불전 한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짚는 것은 물론 역어(譯語) 성립 과정, 불전 한역이 한자어에 미친 영향 등 '문화번역'의 영역까지 다뤘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구성하는 주축의 하나로서 불전 번역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 학생, 기타 불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불교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정치 · 문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그 수용과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로 불교사 연구의 초점은 대체로 정권과의 관계에 맞춰진 감이 있었다. 지은이는 온전히 불교의 핵심인 불전의 번역을 파헤쳐 불교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여름에 보는 연화장세계

전국 사찰 지자체 연꽃축제 개막
조계사 야경TS 등 부대행사 다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자체 축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백련으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하소백련축제 2018'을 진행한다.

연꽃의 계절이 왔다. 연꽃축제도 시작됐다. 연꽃으로 유명한 전국의 사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곱 걸음을 걸었을 때,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이는 연꽃이 화생의 상징임을 말하며, 우주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다. 그래서 서방정토는 연꽃 속의 세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연화장세계라고 부른다. 서방정토가 연꽃 속의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연꽃과 함께 하는 세상이다. 이 역시 연화장세계인 것이다.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서원하며 금생의 연화장세계를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축제가 시작되는 연밭을 찾아가 본다.

연꽃의 만개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축제 시기 역시 조금씩 다르다. **서울 조계사**가 7월 7일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라는 제목으로 제4회 조계사 연꽃축제를 시작한다. 500여 개의 옹기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련과 홍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9월 중순까지 불자들과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진행된다. 누대에 걸친 선망부모와 인연 영가들의 이고 복락을 기원하는 △백중 49재가 7월 8일 입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7월 20일에는 연꽃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500여 개의 연꽃 항아리마다 미꾸라지를 방생하는 △'연꽃 더불어 방생'을 진행한다. 7월 25일에는 장애인불자와 함께 하는 △'조계사,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조계사는 지난 조계사 장애인불자 대법회에서 분기별로 법회 또는 다른 형태의 장애인 불자 모임의 자리를 약속한 바 있다. 두 번째인 이번 법회는 장애인 불자들을 '야경 템플스테이'에 초청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작은 음악회를 함께 한다. 7월 28~30일(2박3일)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7세~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물놀이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조계사 물 만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획사진전의 수상작 23점이 전시된다. (02)768-8574.

백련으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하소백련축제 2018'을 진행한다. 청운사 앞으로 펼쳐진 9900㎡의 대규모 연지에서 만개한 백련의 청초함을 만끽할 수 있다. 청운사는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른 공연과 문화행사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063)542-8943.

남양주 봉선사는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2018'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봉선사 연꽃국제는 연꽃을 통한 지역발전 및 세대 간 공감 짓기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 청소년 교육, 대중문화예술, 사찰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이다. 더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통등 전시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자선행사인 행복바라미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기간 중에는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콘서트 등 각종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먹거리 장터 △직거래 장터 △만들기 체험 △108보물찾기 등이 진행된다. (031)527-1951.

서울 봉원사는 8월 중으로 육법공양의 의미를 지닌 제16회 '서울연꽃문화대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봉원사 연꽃축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행사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충남 부여군은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부여서동연꽃축제 2018**'을 개최한다. 서동요로 알려진 부여 궁남지는 백제 무왕 35년(634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인공연못이다. 축제 기간 동안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50여 종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름철 대표 축제인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선정 2015~2018 4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축제기간 중에는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서동선화 임팩트 쇼 등의 주요행사와 △연씨목걸이 및 연잎모양 촛대 만들기 등 다양한 상설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특판장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041)830-2211

경기도 양평군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교육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과 꽃의 정원 (재)세미원은 6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세미원 연꽃문화제 2018**'을 개최한다. 6만여 평 야외정원에는 홍련, 백련 등 다양한 연꽃이 가득 피어나고 기분 좋은 연향으로 가득하다. 연꽃 외에도 라이트아트, 흙인형 등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작가들과 함께 작품 만들기를 체험하는 작가 공방체험도 진행된다. △연꽃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스탬프투어 △인증샷 이벤트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031)775-1835

1997년부터 연꽃축제를 개최해온 전남 무안군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무안연꽃축제 2018**'을 개최한다. '무안연꽃축제'는 남도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10만 평의 연못을 가득 채운 백련이 장관을 이룬다. 축제 기간 중에는 △개막 축하공연과 △군민합창대회 △연자방 소망등 달기 △연차시음 및 행다 시연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061)450-5472.

전국 연꽃축제 일정

사찰 및 지자체	기간 및 문의
서울 조계사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	7/7~9월 중순 (02)768-8574
서울 봉원사 '서울연꽃문화대축제'	8월 예정 (02)392-3007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7/14~22 (031)527-1951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7/13~22 (063)542-8943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 연꽃문화제'	6/22~8/19 (031)775-1835
충남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7/6~15 (041)830-2211
전남 무안군 '무안연꽃축제'	8/9~12 (061)450-5472


대상작, '빛나는 밤의 아미타여래' (조원영 · 삼육초교6)

동심의 눈으로 그린 문화재들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7월 3일~8월 31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5월 21일 어린이들이 문화재와의 소통을 통해 꿈과 희망을 표현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개최했던 '제3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모았다. 그림은 광주 · 전남 지역 초등학생 374명이 참가해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문화재를 직접 보고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으로 그린 그림들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현직 관련학과 교수와 미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조선대학교미술관장 김익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어린이들의 말고 순수한 심성으로 유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선정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표현기법이 다양해지고 세련된 기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은 '빛나는 밤의 아미타여래'를 그린 삼육초등학교 6학년 조원영 어린이가 수상했다. 그 밖에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0명, 가작 20명, 입선 80명이 선정됐다.

박재완 기자

'고려를 이야기하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600회 특집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7월 25일,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 중 600회 특집으로 '고려를 이야기하다'를 마련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2006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어 600회를 맞이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일이기도 한 7월 25일에 '고려 오백년을 거닐다 1, 2부', '금속공예로 본 고려인의 일상', '고려청자의 탄생'을 주제로 전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18년 12월 4일에 개막될 예정인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을 앞두고 고려의 역사와 미술을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 설명회가 될 것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2018. 5. 16.-7. 17.)의 전시 설명회도 계속된다.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마지막 두 차례의 전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무병장수와 극락왕생(불교회화실, 7/4)', '무덤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여인의 화장품(조선실, 7/11)', '신석기인의 생활(신석기실, 7/18)'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국제협약 준수” VS “협약 대상서 배제돼야”

문화유산재단, ‘부석사 관음상’ 해결 방안 토론회

문화재 반환 첫 인도소송서
국제협약 상관관계 등 분석

“협약 지키고 반환 후 환수”
“반환해야할 법적 이유 없어”
토론 패널 간 입장 차 명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관음상)은 도난 장물인지 왜구의 약탈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찾은 것인지를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 반환 관련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국제협약이다.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해 적용되는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불법 반·출입 등에 대한 협약’과 이를 강화시킨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이다.

이 같은 국제협약과 현재 진행 중인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 소송 중인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국제협약 영향 유무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처음부터 패널들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이 가지는 한계성을 먼저 되짚었다. 손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은 자기집행적 조약이 아니라 자국 입법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는 구조”라면서 “협약의 수범자는 국가이지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1970년 이후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만 적용되며, 이전 시기의 것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부석사 관음상 사례가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적용되는 사례임을 분명히 했다. 도난 당시 불상의 점유지는 일본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근거되는 법은 일본법이 기준되며, 정당한 점유자의 인도청구가 있으면 한국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불상이 과거 약탈돼 불법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어도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령이 적용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석사의 인도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부석사의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면 자력 구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 법정 대리인인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석사 관음상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반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은 각 체결국이 협약 이행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1970년 협약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가 다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협약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협약 이행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제20조 5항은 협약 이전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돼야 옳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이 부석사 관음상을 돌려줄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문화재 약탈 피해국가”라며 “법률적으로 반환한 이유가 없는데도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문화재 환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어느 가해국가가 알아서 문화재를 돌려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관음사의 점유를 기준으로 합법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극단적 ‘문화재 관련 국제주의’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약탈 문화재 보유국들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외국 문화재들이 취득 당시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문화·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음을 내세워 적법성을 강조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현 상태의 유지로서 ‘야만시대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재판 중 일본은 정당한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로 약탈 문화재임이 명확해졌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들어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은 민간 영역에 머물렀던 문화재 반환이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온 첫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사법적 판단은 감정적 국수주의가 아닌 대외적으로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석사 관음상은 유네스코 적용 사례”라면서도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유네스코 협약 제7조 2항에 따라 부석사에 ‘문화재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일본 관음사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의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황사본, 불교학에 미친 영향 살피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등
‘돈황사본’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학자 20여명 참여
中 초기 상속사상 등 발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중국 런민대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일본 도요대 동양학연구소는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서 문명의 교차로 돈황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불교학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중국 런민대(人民大)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일본 도요대(東洋大) 동양학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제7회 한·중·일 삼국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삼국의 돈황 연구자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돈황사본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스징펑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는 중국 초기 불교의 ‘상속사상(相續思想)’ 형성을 돈황사본을 통해 추적했다.

‘상속사상’은 불교의 인생·윤회관, 해탈론과 밀접한 개념이다. 스징펑 교수는 돈황사본 P.3291, P.2908, 〈법화경문외의〉 등 세 문서에서 상속사상의 전개를 살폈다.

스징펑 교수는 “P.3291, P.2908, 〈법화경문외의〉에서 강조한 ‘중생작불·불속중생’의 명제에서 상속사상의 불성론 기초가 추정된다”면서 “남북조시대의 불성론 중 하나인 ‘명전불후의(冥傳不朽義)’가 직접적으로 상속으로 ‘정인불성(正因佛性)’으로 이해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사상은 처음에는 신불멸론에 가탁해 ‘상속중도’ 개념에 도달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정통 불교이론과 결합해 발전했다”면서 “중국 초기 불교의 상속사상은 중도·불성·진무이제 등의 개념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적 특징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종교의식 매뉴얼과 마하연의 선지(禪旨)’를, 최근 지론종 연구로 학위를 받은 이상민 동덕여대 교수가 ‘지론문헌 내 〈본업영락경소〉(S.2748)의 위치’를, 금강대에서 박사를 수료한 신사임 박사가 ‘북주(北周) 도안(道安)의 〈이교론〉과 당(唐) 법림(法琳)의 〈변정론〉과의 관계’를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장원량(張文良) 런민대 교수의 ‘남조 성실종(成實宗)의 이제설(二諦說)’, 양위페이(楊玉飛) 의춘학원 교수의 ‘조법사(照法師)가 찬술한 〈승만경소〉(S.524)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평창 오대산 적멸보궁’ 보물 지정

문화재청 3일 공고… “조선 전기 다포식 대표 건축물”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으로 지정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중대 적멸보궁’은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다시,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 있다”면서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물로 지정된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사찰,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18년 학술논문 공모

오는 9월 14~30일 접수

불교학과 천태학 진흥을 위한 학술공모가 이뤄진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불교학의 진흥과 신진 학자의 연구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천태불교학술논문을 공모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천태학(교리, 역사, 기타) 1편과 불교학 전반(교학, 역사, 응용 등) 2편으로 응모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이다.

제출 서류는 완성 논문과 이력서, 3년간 연구실적물이며, 응모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말에 발간되는 〈천태학연구〉제21집에 게재한다.

또한, 우수 논문 1편은 11월 10일 열리는 2018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02)3460-5226~8

신성민 기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⑬ 사형수 노동춘

사소한 말 한 마디가 부른 살인

도둑으로 오해한 친구 살인
한국 최초 토막 살인범 추정
밥알로 인형 만들며 참회

1972년 성탄절이었다. 대구교도소에서 만난 사형수 노동춘으로부터 돼지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 노 씨는 가톨릭에 귀의한 사형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는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선물한 돼지인형은 노 씨가 교도소 안에서 밥알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만든 인형이었다. "사형수 교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사형수인 저로서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정성으로 받아주세요"라면서 인형을 건네는 그의 표정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초등학생 같았다. 그런 그의 표정을 보고나니, 노 씨의 죄목이 궁금해졌다. "이렇게 아이 같은 얼굴을 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나는 교도관을 통해 그의 죄목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토막살인범이었다. 그의 죄목을 알고 난 나는 노 씨를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노 씨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는 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배식된 밥에서 3분의 1가량을 따로 떼어 코끼리 · 돼지 · 아기인형 · 성모마리아상 등 밥풀공작 인형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인형들을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늘 음식에 대한 부족함으로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었다. 노 씨의 그런 노력은 한 인간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참회하고 용서받기 위한 마지막 몸짓이었다.

노 씨는 경북 울진에서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다.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된 노 씨는 일찍이 생업을 위해 시계 수리 기술을 익혔다. 어느 날, 친목계원인 한 친구가 자기 아내의 결혼 예물시계가 고장이 났다며 수리를 부탁해왔다. 노 씨는 정성껏 수리를 마친 후 잘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노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계방 주인과 크게 싸우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노 씨는 이 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구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노 씨는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고, 노 씨는 점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노 씨는 할 수 없이 이삿짐에 묻어온 친구의 시계를 팔았다. 운명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노 씨는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대구역 앞에서 시계를 맡겼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됐다. 노 씨는 반가운 마음에 오랜 만에 만난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럴 수 없었다. 친구는 "도둑놈! 이 날강도!"라며 노 씨의 멱살을 쥐었고, 욕설을 퍼부었다. 노 씨는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친구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노 씨는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 술



손목시계가 빌미가 되어 결국 사람을 죽게하고 사형집행을 받은 노동춘(사진 왼쪽).

한 잔을 하면서 다시 차분하게 사정 얘기를 했다. 그리고 곧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빚진 시계 값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노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신고를 하겠다며 노 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친구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노 씨에게 "병신 주제에 도둑질까지 해!"라며 고함을 쳤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위해 친구의 시신을 토막 냈고, 토막 낸 시신을 시멘트 포장지에 넣어 대구 북쪽에 있는 배자못에 버렸다.

사건 발생 7일 만에 노 씨는 체포되었다. 체포된 노 씨의 왜소하고 온화한 얼굴에 경찰들조차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저히 '토막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노 씨였다. 노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순간의 실수가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뒤바꿔놓고 말았다.

사형이 확정된 후, 노 씨는 곧 가톨릭에 귀의했다. 노 씨를 귀의시킨 마리아수녀는 노 씨를 끝까지 보살폈다. 노 씨는 자기 손에 귀한 생명을 빼앗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진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노 씨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노 씨의 사형이 집행됐다. 마리아 수녀가 집행장에 입회했다. 마리아 수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수녀님 울지 마세요. 제가 먼저 천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 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보답도 못하고 이렇게 떠납니다."

노 씨의 사형이 집행되고 3일 후에 나는 마리아 수녀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다. 나는 노 씨가 내게 준 돼지인형을 바라보면서 노 씨가 꼭 이 땅의 죄업을 씻고 다음 생에 다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길 기도했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⑫ 철산스님 · 호경거사

선방 대중공양을 다니다 여러 번 인연이 되어 '돼지보살'(기도는 하지 않고 잠만 잔다고 해서)이라는 별호를 붙여주신 스님이다. 하늘을 보지 않는 돼지는 넘어져봐야 하늘을 볼 기회가 생긴다. 어려움을 겪어보고 행복의 의미를 알 때쯤 찻자리가 꽃자리 되어 꽃이 되라 하네.



음악을 좋아하는 큰아들(이재성)이다. 어릴 때, 팔베개를 해주면서 숫자 세기를 자장가로 대신했고 젖 물리고 재울 때는 '주인으로 살래, 종으로 살래'를 노래하듯이 토닥여 주면서 키웠다. 불교를 전혀 모르는 일상이었지만 은연 중 그때 佛씨가 심어졌나 보다. 세상을 알아가면서 보살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이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불향(佛香)이 되어 불국토(佛國土)가 되어야 한다고 발원하는 신심 견고한 거사이다.





2018년 한마음선원 여름 수련회

지원명	분 류	주 제	기 간	장 소	기 타
본 원	• 어린이회(초등3~6학년)	뛰어봤자 주인공 손바닥!	7/27(금)~29(일)	광명선원	본원, 광명 연합수련회
	• 학생회	몰락 놓고 푹 쉬자 – 얘들아 놀자!	7/20(금)~22(일)	통영지원	
	• 청년회	마음	7/6(금)~8(일)	통영지원	
광명선원	• 어린이회(초등3~6학년)	뛰어봤자 주인공 손바닥!	7/27(금)~29(일)	광명선원	본원, 광명 연합수련회
	• 학생회	바다로 떠나는 힐링캠프	8/2(목)~4(토)	통영지원	
	• 청년회	소확행(소소함으로 확실한 행복한 여행)	7/27(금)~29(일)	해남일대	광명, 청주 연합수련회
	• 탑주 가족	가족의 인연과 함께하는 인연의 도리	8/18(토)~19(일)	한마음 광명선원 도량	선착순 50명 미만
제주지원	• 어린이회	고.마.이.(고요한 마음으로 이루오리다)	6/23(토)~24(일)	제주캠핑장	
	• 청년회	일체 만물이 우리 스승	7/28(토)~29(일)	제주지원, 제주도 내 펜션	
부산지원	• 어린이회(초등학생)	우리는 보물이다	7/27(금)~29(일)	부산지원	
	• 학생회(중 · 고등학생)	우리는 어디서나 빛나는 보물이다	8/3(금)~5(일)	서울	
	• 청년회 (20세~직장인 미혼남녀)	마음의 숨	7/7(토)~8(일)	지리산 일대	
광주지원	• 어린이회(7세~초등 6학년)	넓고 깊은 한마음의 바다로	7/21(토)~22(일)	전남 무안 일대	
	• 학생회, 청년회 연합수련회 (중 · 고등학생, 청년)	하나되기	7/28(토)~30(월)	경기도 일대	광주, 목포 연합수련회
울산지원	• 어린이회	마음꽃 활짝	7/28(토)~29(일)	울산지원	
	• 학생회	우리는 한마음	7/21(토)~22(일)	울산지원	
대구지원	• 어린이회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학생회	우리는 하나	7/28(금)~29(토)	대구지원	
중부경남 지원	• 어린이 · 학생회 연합수련회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청년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고!	7/7(토)~8(일)	지리산 일대(비발디펜션)	
진주지원	• 어린이회(7세~초등 6학년)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청년회	마음의 숨	7/7(토)~8(일)	지리산 일대	
포항지원	• 어린이회	사랑해! 감사해! 모든 생명 나의 부처님!	7/21(토)~22(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예정)	
	• 청년회	몸도 마음도 둥굴게 둥굴게	7/14(토)~15(일)	평사리	
청주지원	• 어린이회	우리가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8/11(토)~12(일)	광명선원	
	• 학생회	우리는 한가족	6/8(금)~9(토)	광명선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련회
	• 청년회	소확행(소소함으로 확실한 행복한 여행)	7/27(금)~29(일)	전남 해남	광명, 청주 연합수련회
통영지원	• 어린이회(7세~초등 6학년)	무조건 OK	7/30(월)~31(화)	통영지원	통영, 중부경남, 진주, 대구 연합수련회
	• 학생회	몰락 놓고 푹쉬자 – 얘들아 놀자!	7/20(금)~22(일)	통영지원	본원과 연합
	• 청년회	마음	7/6(금)~8일(일)	통영지원	본원과 연합
목포지원	• 학생회, 청년회(중·고학생, 청년)	하나되기	7/28(금)~30(일)	경기도 일대	광주, 목포 연합수련회
문경지원	• 어린이 · 학생회	뛰어 봤자 주인공 손바닥!	7/27(금)~29(일)	광명선원	광명, 문경 연합수련회

● 수련회 일정은 2018년 7월 5일까지 확정된 내용을 실은 것이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